

#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 오대산 천년옛길, 선재길

- 오월의 역사길

- 울릉도 옛길

- 강릉 옛길

- 양구 옛길

- 인제 자작나무숲 옛길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

2017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강원도 지역의  
인문학 거점센터입니다.

강원도 내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과 연구 아젠다의  
공유를 위해 생애주기별 인문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인문교육공동체네트워크 조성,  
인문자산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개소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지난 25년 간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출판,  
일본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으로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연구 아젠다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대산 천년옛길, 선재길

- 오월의 역사길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 울릉도 옛길

- 강릉 옛길

- 양구 옛길

- 인제 자작나무숲 옛길



# 동아시아의 선한 연대, 인문교육공동체와 함께 시작합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 협력을 목표로 세계와 소통하며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2017년부터 국책사업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원도에 인문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우리 삶, 우리 이웃, 우리 고장에 바로 인문학이 있습니다.  
지역인문학센터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인문학을 만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강원도의 산과 바다와 자연을 즐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문학을 우리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 교사, 교원, 학부모, 인문교육 NGO단체와 함께한  
<포문동워크숍>과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은  
우리 지역에서 인문교육 현장에 몸담아 계시는  
여러분이 함께 읽고 함께 표현하고 함께 기록하는 캔버스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른 얼굴을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걷는 도화지입니다.

인문교육공동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서 정 완

## 길을 걸으며 길을 열었네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 박노해, 501쪽

거리두기는 마음까지 멀어지게 했다. 가려진 마스크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했다.  
나아갈 길을 잠시 잃는 듯했다. 희뿌연 안개 속 길 위에서 깊은 성찰과  
연대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2020년 봄, 책으로 맺어진 교사들이 책 밖으로 걸어나와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변과 이웃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도외시했던  
자연의 숲으로 걸어나갔다. 강원교사인문학여행! ‘걷는 독서’의 시작이었다.  
강원도와 동아시아를 잇는 공간의 길,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그리고  
바다의 길을 향해 함께 걸었다. ‘오대산 천년 숲길-선재길’에서 사무치는 바람꽃  
무리가 되어 덩달아 흔들렸고, 천년 불교문화를 더불어 품었다.  
‘오월 광주, 역사의 길’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의 삶에서 다시금 새겼다.  
8월 작열하는 태양 아래 드넓은 바닷길, 울릉도 옛길 곳곳을 누비며 섬 문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우리가 되어 함께 걸었다.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걷는 독서》, 박노해, 828쪽

2021년 여름엔 강원지역 정선·태백·사북항쟁의 역사 현장을 찾았다.  
‘오월 역사의 길’을 잇는 길이기도 했다. 땀 흘리며 함백산 정상에 올라 옛 운탄고도  
히늘길에 묻힌 탄부들의 애환과 시름을 담기도 했다. 강릉 지역의 ‘대관령  
옛길-안반데기길-모정탐길’로 이어지는 옛길, 그리고 분단의 역사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양구 ‘DMZ편치불 둘레길’ 원시림에서도 비바람을 맞으며 어우러져

걸었다. 가을빛이 깊어갈 즈음 이제 자작나무숲과 마의태자숲길에서는 모두의 가슴에 시가 내렸다. 누구라 없이 시를 한 편씩 낭송하고 판소리 가락에 귀 기울이며 시인이 되었다. 가을숲의 고즈넉함과 고결한 흰빛 나무에 기대어 한 그루 나무가 되었다. 고독한 나무와 나무와 나무들이 모였다. 수백 수천의 눈빛, 아름다운 지흔을 온몸에 새기며 비로소 우리, 숲이 되었다. 더불어 함께 길을 열었다.

지난 두 해 동안 우리는 봄숲에 스며들어 봄이 되었고, 여름숲길에선 초록으로 빛났으며, 가을숲에 깃들어 떨어뜨리 되었다. 오랜 세월 삶이 다져진 고개마루에서, 굽이치는 길목마다에서 작고 여린 못 생명들과 마주치곤 했다.

소중한 '시간의 점'들은 멀어졌던 마음들을 이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오늘도 우리는 오래된 시공간, 오래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현재를 진단하며 내일을 모색한다. 사람과 사람을, 삶과 삶을 이어주는 그 길에 늘 곁이 되어 묵묵히 걷고 있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과 강원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든든하다. 또한 언제나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을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여러분께 깊숙이 감사드립니다.

남춘천여중 수석교사  
강원도교육청 인문독서교육연구회VISTA 대표

한명숙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를 소개합니다!

지역인문학센터 정식 명칭은 강원지역인문학센터예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사립대학 안에 있는 작은 연구소이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며,  
어떻게 하면 인문학으로 더 즐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고장 강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마음을 이끄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봄에는 원 없이 꽃을 바라볼 수 있고,

여름이면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동해바다가 달콤한 휴식의 시간으로 안내해 주어요.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마음을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설원이 움츠려든 추위를 활기찬 스포츠로 바꾸어 주기도 하고요.

이런 강원도에 자리한 강원지역인문학센터는

강원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강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알고,

이웃 동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이어갔으면 해요.



---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 그 안의 작은 인문학 관련 연구소가  
대학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이 산처럼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만큼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되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훈훈한 인심을 만들고,  
누군가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선한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부센터장

심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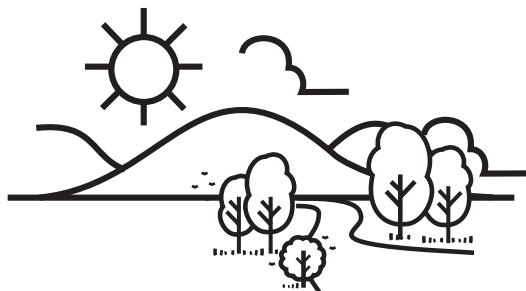
003	인사말 1, 2
006	소개글

## 포문동위크숍

### PART 1

강원도와 동아시아를 잇는  
공간의 길  
천년옛길, 선재길

012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위크숍>을 소개합니다!
016	2020년 천년옛길, 선재길 역사문화답사
018	선재길에서 나를 만나다
020	천년옛길 선재길을 다녀와서
022	선재길에 서서
024	2020년 오대산 선재길 답사 후기
026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
028	옴 바나만 아령하리
030	여름 문턱에서 만난 오대산 천년숲과 선재길
031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032	고요한 선진국의 절간, 상원사와 월정사
033	바람꽃에 마음을 씻다
034	자신을 찾는 길과 선재길
036	오대산 선재길에서 새로워진 하루
038	오대산 선재길 인문답사, 나를 찾아가는 길
040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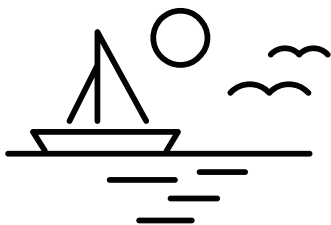
## PART 2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오월의 역사길

- 044 2020년 오월의 역사길 역사문화답사
- 046 오월 민중길을 다녀오면서
- 048 5.18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한 오월길 답사
- 050 광주의 오월, 그리고 나의 '오월의 노래'
- 052 오월의 제가 오월의 당신께
- 054 재학 군, 그곳에서 잘있어요?
- 056 작은 발걸음
- 058 5.18 역사문화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 060 묘비번호 8-1 박기현
- 061 광주의 슬픔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 062 망월동에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기를
- 064 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
- 066 오월길, 아직도 끝나지 않은
- 068 광주정신이 속삭인다
- 070 2020년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를 다녀와서
- 072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②
- 074 동아시아 화해와 공존을 위한 토론 및 강연회

## PART 3

동아시아를 잇는 바닷길  
울릉도 옛길



- 078 2020년 울릉도 바닷길 역사문화답사
- 080 울릉도 도동항에서 바라본 일출
- 082 오래도록 그리움으로 남으리라
- 084 잊지 못할 울릉도의 밤
- 086 울릉도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 088 화해와 공존이 우리 곁에 있음을 되새기다
- 090 울릉도는 내 고향 건지리!
- 092 미완의 길 770m
- 094 자랑스러운 우리 국토, 울릉도!
- 096 시간의 점, 행남등대 가는 길
- 098 울릉팔경을 보고 싶은 꿈
- 099 매력의 섬, 울릉도
- 100 마가목, 울릉도다!
- 102 동백꽃 필 때 다시 오기를
- 104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③
- 106 special theme 정선태백 인문기행 함백산과 만항재, 그리고 사람들

## 강원교사인문학 여행

### PART 4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강릉 옛길

- 110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을 소개합니다!  
112 손길을 내미는 책과 천천히 마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 116 노추산 모정탐길을 걸으며  
117 길에서 배우는 느린 삶  
118 걸음  
119 대관령 옛길, 안반데기, 노추산 모정탐길에서  
120 독보(獨步), 독보(讀步), 독서(讀書)  
122 는개비 내리는 대관령을 걸으며  
124 산과 강과 구름 위를 걸으며  
126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좋다!  
127 아침 대관령 옛길에서  
128 좋은 삶을 만드는 길 걷기  
129 걷는 독서  
130 간절함이 이 길로  
131 노추산 모정탐길을 걷고  
132 강릉 일대를 다녀와서  
133 애환이 굽이굽이 나가는 길  
134 대관령 옛길을 걷다  
136 걸으며 생각하며, 강릉 옛길  
137 나를 만나러 가는 길  
138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④

### PART 5

박노해 詩와 걷는  
양구 옛길

- 142 양구 편치불 둘레길을 걸으며  
143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길  
144 맨발로 걷는 해안둘레길  
145 백자박물관으로 시는 흐르고  
146 독풍(讀風): 바람을 읽으며  
147 그리운 아버지와 함께 걷는 편치불 둘레길  
148 나무와 꽃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  
149 먼저 인사하는 마을  
150 해안면의 이쁜 이름들  
152 비 오는 일요일의 걷는 독서여행  
154 친구 만나러 갔던 길을 오늘은 時와 함께 올랐네  
156 바쁜 걸음을 슬며시 늦추는 오늘  
158 산국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길  
159 해안둘레길 숲의 검은빛  
160 걸으며 생각하며 비우며  
162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⑤

---

## PART 6

시인과 함께하는

### 인제 자작나무숲 옛길

- 
- |     |                   |
|-----|-------------------|
| 166 | 이토록 아름다운 평화라니     |
| 167 | 자작나무숲속 시 낭송       |
| 168 | 마의 태자 비문을 보고      |
| 169 | 자작나무와 마의 태자       |
| 170 | 시인과 함께하는 낭송 체험    |
| 171 | 독심(讀心): 마음을 읽어요   |
| 172 |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
| 173 | 자작나무 숲에서 시를 읽다    |
| 174 | 빛처럼 서 있는 숲에서      |
| 175 | 가을 내내 환하게 밝혀 놓을 길 |
| 176 | 한없이 보고 싶은 그런 가을날  |
| 177 | 시가 마음을 풍요롭게       |
| 178 | 걸으며 생각하며, 인제 옛길   |
| 179 | 밤새 자작나무를 탔다       |
| 180 | 다시 하얗게 채우다        |
| 181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⑥   |
| 183 | 참여하신 분            |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워크숍>을 소개합니다!

강원지역인문학센터는 우리 지역 강원도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일상처럼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 내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인문교육NGO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인문학을 더 의미 있고 뜻깊게 이어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포문동워크숍>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 아젠다인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의 줄임말이자, 한자로는 ‘抱問童’이라 하여 순수한 물음을 품은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학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인문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같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 〈포문동워크숍〉 운영일정

날짜	내용	주제	강연자	주제도서
2020. 05. 05.	인문답사 1회기	강원도-동아시아를 잇는 공간의 길 - 오대산 선재길 걷기	한명숙 김효문	《망월》(상,하) 《미래를 여는 역사》
2020.5.29.	강연회 1차	동아시아 화해와 공존을 위한 토론 및 강연회	한명숙 김효문	《소년이 온다》 《은주의 영화》
2020.5.30.~31.	인문답사 2회기	오월 역사길 답사 -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한명숙 김효문	
2020.6.25.	강연회 2차	화해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평화의 조건	김장성	《하늘에》 《수박이 먹고 싶으면》
2020.8.3.	강연회 3차	화해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특강 - 동아시아 민중의 연대	김진규	《친구가 된 일본인들》
2020.8.17.~19.	인문답사 3회기	강원도-울릉도-동아시아를 잇는 바닷길 답사	김진규 김효문	

## 2020년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워크숍〉

2020.5.29.

민주시민교육 수업역량 함양



2020.6.25.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평화교육



2020.8.3.

특강 《친구가 된 일본인들》



2020.8.18.

인문답사, 강의 김효문





포문동 워크숍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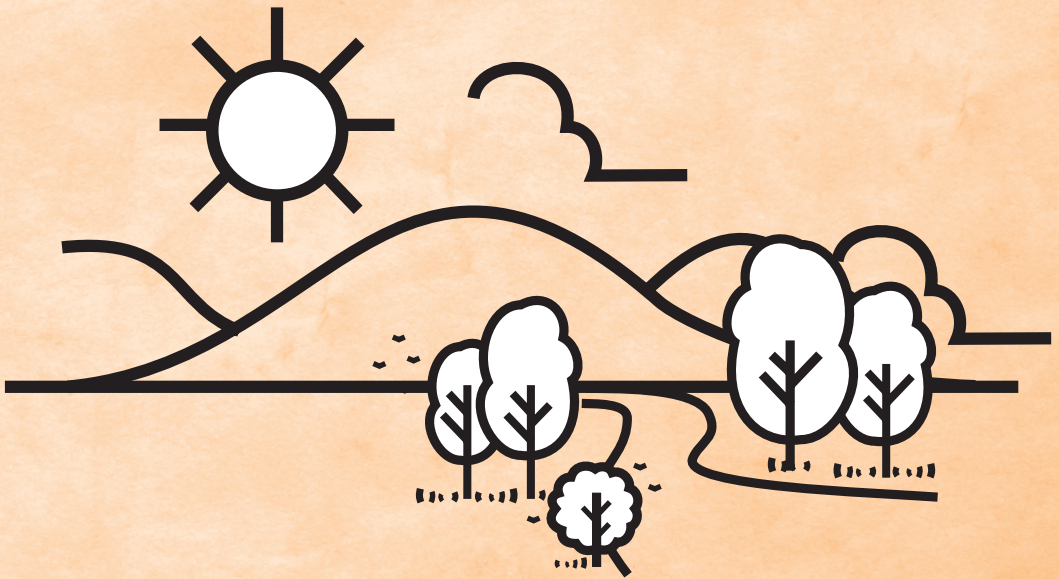
PART

---

강원도와 동아시아를 잇는 공간의 길

천년옛길, 선재길





# 2020년 천년옛길, 선재길 역사문화답사

김효문 / 강원교육연구소

## 1.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인문답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진정국면이 접어들었고 추진이 되었다. 2020년 인문답사는 선재 천년길 - 오월 역사길 - 울릉도 바닷길 등 세 번에 걸쳐 전개되었다. 동아시아 역사 문화 이해와 평화 공존을 위한 인문교육공동체 인문답사는 먼저 강원도 오대산 천년숲 선재길을 찾았다. 이번 답사에는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인문동아리 연구소 회원과 교사 모두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상원사, 선재길,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번 답사는 강원교육연구소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 2. 일정

날짜	세부일정
5.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30 춘천 출발(호반체육관 종합체육회관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30 ~ 10:30 상원사 역사 문화 답사(2km) / 해설: 한명숙(연구소)</li> <li>→ 10:30 ~ 12:00 선재길 탐방(6km) / 해설: 한명숙(연구소)</li> <li>→ 12:00 ~ 13:00 월정사 답사(2km) / 강사: 김효문(연구소)</li> </ul> </li> <li>● 13:00 ~ 14:00 중식(산채비빔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0 ~ 15:00 성보 박물관 - 의궤박물관 답사(1km) / 해설: 김효문(연구소)</li> </ul> </li> <li>● 15:00 월정사 출발</li> <li>● 17:00 춘천 도착 (해산)</li> </ul>



### 3. 사진



# 선재길에서 나를 만나다

김원영 / 강원교육연구소



108번이나 굽어진 선재길을 걸어가면  
두려웠던 나의 맘에 동자승의 미소  
부처님의 자비가 풀잎의 이슬처럼  
아직 그곳엔 머물러 있고  
꽃향기에 취하고 물소리에 다시 취하고  
이렇게 선재길을 찾아  
이제라도 나를 느껴  
나는 이곳에서  
이제라도 나를 답아  
우리 잠시 멀어지더라도  
더 깊이 새겨져 여기 또 선재길  
얼어붙은 먼 길을 지나 이렇게 다시 여기에  
혹시 나의 눈에서 멀리 사라져도  
흔들렸던 나의 맘에 살며시 다가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제라도 찾아갈게  
아직 그곳에 머물고 다시 선재길에  
다시 이곳에 다시 그곳으로...



# 천년옛길 선재길을 다녀와서

김 재 중 / 강원교육연구소

●●●  
인문교육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오대산 선재길을 다녀왔다.

내가 월정사와 상원사를 다녀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맨 처음은 약 30년 전에 월정사만 다녀왔고, 다음은 약 15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월정사와 상원사 그리고 적멸보궁을 거쳐서 비로봉까지 다녀온 기억이 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오래된 친목여행으로 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꿈에 다녀온 듯 기억이 가물가물 난다. 두 번째는 비로봉까지 왕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면서도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산행 중심으로 다녀왔다.

이번 인문답사를 가기 전에는 좀 딱딱한 산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발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에 월정사와 상원사와 선재길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와 얹힌 이야기를 듣고, 답사 중 문화재와 주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와 들꽃 들의 이름과 꽃말, 전설 등의 해설을 들으면서 답사를 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포근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유명한 사찰과 역사적 유물이 많이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좋은 자연과 훌륭한 문화재에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번 답사에서 많이 느꼈다.

6.25 때 월정사는 우리 국군이 퇴각하면서 불을 질러 폐허가 되었지만, 상원사는 한암스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무자비함에 마음이 씁쓸하였다.

나는 당시 월정사에서 범종이 불에 타 녹아버렸다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나 집에 와 찾아보니, 미천골에 있었던 선림원이 무너질 때 땅에 묻힌 범종을 1948년에 발굴하여 월정사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녹아버린 선림원 범종은 상원사 범종, 에밀레 범종과 더불어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범종이었다고 한다(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권).

선재길을 같이 걷던 친구는 파로호를 원래 그곳의 지명인 대봉호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곳에서 죽은 수많은 중공군의 영혼을 달래는 자작시에 스스로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우리의 적일지라도 전쟁에 끌려와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고,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게 만든 권력자들이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나누면서 걸었다.

이곳은 전쟁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숲속에는 많은 꽃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계곡물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계곡물소리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번 답사에서 자연은 그 모든 아픔을 간직하고 품어주면서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선재길에 서서

- 지금, 여기에, 내가

김정민 / 가정중학교

●●●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참 많이 누긋해졌다.  
무엇 때문에 그리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늘 뽀족하게 살아서,  
숨이 가쁘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했었다.  
3월, 4월, 5월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  
자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들이 하나둘 사그라들면서,  
나쁜 감정들도 하나 둘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 순간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문교육공동체를 엮니다~~~'  
절묘한 순간에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이런 행운이 있을까, '올해 땡 잡았네' 하는 마음으로  
선재길 답사에 동행하게 되었다.

'번뇌가 사라지는 길'  
마치 나의 마음을 읽듯이. 상원사 계단을 밟으며 소리를 죽였다.  
상원사 동종의 비천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음을 빼앗겼다.  
내가 석수였다면 꼭 저 비천상을 새겼을 것이다.  
둘러보다가 발견한 영산전 앞의 돌탑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오솔길에 이름 없이 쌓아올려진 돌탑 같은 무심함이  
내 마음에 그리움처럼 젖어들었다.



자주 볼 수 없었던 '바람꽃'을 만나, 자꾸 꽃송이를 흘겨보며,  
 모처럼 바람 피는 마음이 되어 보았다.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드문드문 요상하게 나를 꼬시는 또 다른 흰 꽃이 있었다.  
 나중 습지 작은 식물원에서 이름을 보니, '기생꽃'!  
 어쩐지 자꾸 꽃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니. 정말 이뻐다.  
 선재길을 걷는 내내, 저만치 혼자서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마치 꽃들도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툭툭 떨어져,  
 가끔씩 선재길 걷기를 이끌어 주었다.  
 오대산에는 이제 봄이 오고 있었다.

산채에 막걸리 한 잔 걸쳐서,  
 약간 몽롱한 기분으로 성보박물관으로 갔다.  
 석보보살좌상이 딱 버티고 앉아  
 '홍진에 못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 주었다.  
 '좌탈입망'. 한암스님의 맑고 하얀 모습에  
 가슴에 큰 바람이 휘잉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실록은 만년 이후를 기다리는 책이다.' (정조 《국조보감》 서문 중)  
 책을 자주 보는, 아니 사는 나에게 '기록한다는 것'에 새삼 감동했다.  
 '실록이 없었다면 풍요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한 자리 마련하고  
 허허 대며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산유화> 한 곡조가 절로 나왔다.

## 2020년 오대산 선재길 답사 후기

라상숙 / 금산초등학교 교무행정사

●●●  
초록이 피어나는 5월 5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피어나는 봄기운 만큼이나 마음 따뜻한 분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골짜기를 깨우는 맑은 계곡물 소리, 뒤늦게 피어난 탐스런 목련 봉오리의 화사함이 돌아나는 초록과 어울려 더욱 우아한 자태를 뽐내던 풍경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아직도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가끔 일상에서 지칠 때 오랜 세월을 견디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았던 커다란 전나무들을 생각하면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오대산 선재길 답사의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저는 상원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노스님의 이야기와 리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보물을 알아본 해안과 그걸 지키기 위해 총칼의 두려움에도 당당히 맞선 용기에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선재길을 안내했던 커다란 전나무 한 그루가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이겨내고 늠름하게 길잡이가 되어준 전나무 한 그루, 아마도 노스님과 리영희 선생님의 용기는 상원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길에 초대해주신 강원교육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에서 만났던 바람꽃이 참 예뻐서 바람꽃을 주제로 한 시를 여러 편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시들 중에 작은 울림을 준 시 한 편을 첨부합니다.

오대산 골짜기에서 여린 꽃잎 흔들리며 온몸으로 바람을 맞던 예쁜  
바람꽃을 떠올리며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백예순다섯 날  
가슴으로 흔들리다  
꽃물로 새기는 그리움  
  
너의 뒷모습에 어리던  
고독한 언어는  
시린 계절을 밀어낸 흔적  
  
덧없는 사랑  
온 산  
메아리로 울어도

옛된 햇살이  
무릎 꿇어  
눈맞춤하면  
  
하얗게 흐드러진  
여인네의 치마자락에  
촉촉히 열리는 꽃 문

- 이주영의 <바람꽃>



#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

- ‘길 위의 마주침’에서 깨닫다

박명희 / 성수고등학교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하고 그 안에서 심리적 긴장을 겪으며 어느덧 오월의 신록 한가운데에 섰다. 5월 13일,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던 등교 개학이 3학년을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날 아침, 여느 날과 같이 학생 없는 학교로 출근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지난 5월 5일, ‘2017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대산 선재길로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문동아리 답사 활동1’을 떠난 날은 화창했고, 노란 동의나물, 연보랏빛 봄구슬봉이, 희고 단아한 개별꽃 등 수많은 야생화가 5월 맑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곁에서 나의 마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그리고 내가 답임을 맡고, 교과서 배부 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주 잠시 마주했던 우리반 학생들(고1 신입생)을 만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조금은 부풀기도 했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지금,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와 그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 소식은 잠시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마음을 추스르며 5월 5일을 떠올려 본다.

문득 천년 옛길, 오대산 선재길을 걸어 도착한 ‘정보박물관’. 그 안에서 마주친 한 구절, 의상대사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로’서 각 현상이 서로 서로가 원인이 되어 밀접한 융합을 이룬다는 것, 즉 우주의 다양한 현상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 대립을 지양하고 전체와 부분의 일체화를 지향한다’는 그 뜻이 필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에 마음마저 흔들릴 수 있는 고비에서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임을 되새기며 마음밭을 고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 인문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곧 등교 개학을 통해 만나게 될 제자들과 청명한 선재길을 함께 걸으며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아침이다.





## 옴 바나만 아링하리

박혜진 / 유봉여자고등학교

5월의 오대산 선재길. 이름만으로도 고요한 청량함이 묻어나는 길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복잡했던, 1년 전 5월에도 저는 이 선재길을 걸었습니다. 깨달음을 찾아가는 선재길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언수행하듯이 걷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를 달래주고 위로를 한 것은 오대산의 숲과 바람, 새소리이었을까요? 그날 무엇인지 모를 위로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던 2019년 5월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다시 1년 뒤, 선재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 밑둥 안에 올라오는 관중도 그 자리에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고, 소박하게 나무에 걸쳐 있는 ‘선재길’ 팹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년 전 가라앉은 것 같았던 제 마음도, 그때처럼 다시 조금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언행의 무게를 점점 무겁게 느껴가는 나 이 때문인지, 여전히 쉽지 않은 인간 관계의 흐름 때문인지, 모든 부정적 상황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1년 전 그때 마냥 복잡다단한 마음으로 들어선 선재길에서, 계곡물 소리 사이사이에 들리지 않는 상원사 종소리를 섞어 떠올려보던 선재길에서 특유의 그 고요한 청량함으로 저는 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 준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 위안은 선재길 자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 걸음 멈춰 서서 나를 비울 수 있는 시간, 무엇인가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문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오대산 성보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 통로에 불교의 진언이 있었는데, 눈길이 가는 진언을 하나 하나 담아봤습니다. ‘온갖 병고가 사라지길 바라는 진언’, ‘어질고 착한 벗을 만나길 바라는 진언’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 마음을 위로했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진언’(옴 바나만 아링하리)을 다시 새겨 읽습니다.

‘옴 바나만 아링하리’.

모든 존재들의 존중과 사랑을 통해 마음 속의 고뇌와 육체적 고통이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재길에서의 제 깨달음을 적어봅니다.



## 여름 문턱에서 만난 오대산 천년숲과 선재길

안대진 / 봄내중학교

● ● ●  
바람이 술술 불어오는 곳에 갔다.

도시의 시끄러운 바람이 숲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하나의 꽃이 되는 것 같다.

바람꽃과 들꽃은 오대산 문턱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맞이한다.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산들바람을 불어 넣어준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오대산 선재길은 자세히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의 그것과는 대비되는 호젓함이 있다.  
선재길을 걸으며 번뇌들이 부서져 퍼진다. 변조된 번뇌는 새로운 번  
뇌가 되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월정사의 문턱이구나.

스님의 불경 외는 소리가 울리고, 어린이날을 맞은 아이들의 웃음소  
리가 들린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과 행복한 가족들로 환원된 바람  
이 월정사에 퍼진다. 스님의 불경 소리는 그들의 웃음과 다르지 않  
다. 평등한 웃음과 경 읽는 소리라 느꼈다.

선재길에는 다양한 자연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연  
을 구경하고 역사를 보고, 박물관을 보니 여름인데도 시원한 오대산  
뒷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뒤로 뜨거운 여름의 바람이 불어온다.

자연의 바람은 빠르게 흐르구나.

#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이병덕 / 강원교육연구소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 뵈지 못하는 뉴스를 들으며, 나도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기에 자식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그런데 연휴기간에 클럽에 주점에 싸돌아 다니며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일빠진 놈의 뉴스도 함께 듣는 우울한 어버이날이다.

몇 달을 거의 집콕만 하다가 오대산 선재길 답사는 그 자체로 좋았다. 떠남, 막걸리, 대화, 숲속 길, 맑은 물 등.

전나무 숲길을 걷다가 유난히 큰, 한 서너 아름이 족히 되는 전나무를 본 순간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고향 깊은 산속에 아름답고 멋진 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손수 베어 지게로 옮기고 사람을 사본인이 죽으면 들어갈 관을 짊어질 널빤지를 켜며 흡족해 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났다. 정작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널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파는 관을 사용했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장손에 관한 모든 뒷바라지는 본인이 해야 한다며 헌신해 오신 분인데 그간 잊고 살아왔다. 선재길 전나무를 보며 할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 답사였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 고요한 선진국의 절간, 상원사와 월정사

이혁중 / 강원교육연구소



선진국다운 고요함의 연속이었다.

스물여덟 명의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고요함을  
즐겼다. 코로나19의 강력함이 모두의 얼굴에  
마스크를 채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고요함의 절정을 이룬 상원사와 월정사는 잘 정돈된 절이면서도  
엄숙한 정경이 선진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질서 국민의식 등에 있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문화선진국임을 자부하게 되었는데,  
깊은 절간이면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뜻말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려는듯 했다.

잘 정리된 자료집과 안내 선생님들의 설명이 참가자들 모두에게  
신뢰감을 듬뿍 안겨주어, 많은 것을  
배워간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답사였다.

# 바람꽃에 마음을 씻다

정순애 / 가산초등학교

● ● ●

오대산 선재길에서 가장 먼저 반겨준 흠아비바람꽃,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하얀 얼굴로  
바람에 다 같이 몸을 맡기고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다독여 주는  
자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위안을 받는 시간이었다.



## 자신을 찾는 길과 선재길

이현숙 / 모곡초등학교



지금까지 가족들 또는 지인들과 오대산 전나무 숲길과 정상 등산도 해보았지만 이번 오대산 선재길 기행은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기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동하는 동안 내 내 들꽃의 이름과 나무를 알려주며 역사와 문화재를 두루 섭렵해서 재미있게 안내하는 한명숙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다.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더욱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선재길에서 만난 예쁜 풀꽃들. 노란색 피나무, 하얀색 바람꽃, 동의나물, 봄구슬봉이 등 작은 꽃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만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전나무 숲길에서 파릇파릇 돌아난 새잎이 5월의 싱그러움을 더했고, 길 옆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걷는 내내 자연을 맘껏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함께 걷는 동료 선생님과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오롯이 선재길만 걸으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 오대산 선재길에서 새로워진 하루

임효정 / 장학초등학교

●●●

5월 5일 어린이날, 인문교육공동체 인문답사에 참여했다. 강원교육 연구소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나는 호모데우스 모임을 통해 신청했다.

아침 7시 30분, 버스에 타니 맛있는 김밥과 물, 과일까지 간식이 놓여 있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꿀맛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집, 마트만 오가던 일상이었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니 기분이 새로웠다.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도 보고, 김효문, 한명숙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도 듣고, 나눠준 자료집도 읽어 보았다.

상원사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종에 관한 전설도 재미있었다. 안동에서 옮겨올 때 움직이지 않자 한 스님이 연봉 하나를 떼어 안동에 두었고, 다시 움직여 상원사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상원사에 가 보니 동종은 큰 유리상자 안에서 보호 받고 있었다. 함께 간 선생님들과 떨어진 연봉 부분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다. 세조가 문수동자를 만나 질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황금빛 목조문수동자좌상도 보고, 세조를 자객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전해지는 낡은 고양이 석상도 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면 ‘저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세조가 오대천에서 목욕할 때 관대를 걸어두었다는 관대걸이도 마찬가지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비석 같아 보이는데, 이야기를 알고 보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상원사는 한국전쟁 당시 주지였던 한암스님의 용기와 절개로 지켜졌다는 역사 이야기도 들었다. 1951년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해 상원

사를 모두 불태우라는 소각 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암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 모두 태우라”고 버티셨다고 한다. 그에 감화된 군인들이 문밖만 태우고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하여 상원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무심히 바라보는 옛 사찰도 이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찾아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월정사로 갔다. 월정사는 상원사보다 규모도 크고,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이 있는 곳이었다. 팔각구층석탑은 보수 중이었다. 맛있는 산채비빔밥을 점심으로 먹고 찾아간 성보박물관에서 석조보살좌상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많이 보던 부처님상과 다른 개성이 느껴졌다. 표정도 살아있는 듯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노곤해져 눈을 감았다. 한명숙 선생님이 녹음한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늘 반성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를 돌아보고 역사를 새롭게 배운 여행, 아름다운 자연과 가깝게 만나고 독서모임 선생님들과 즐겁게 만난 여행이었다.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 오대산 선재길 인문 답사, 나를 찾아가는 길

정연실 / 양덕중학교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 속에서 막연한 불안과 답답함으로 지내던 내게 2020년 5월 5일,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문교육공동체 인문 답사는 그야말로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었다.

주변에 항상 있는 모든 것들도 어느 날 문득,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 오듯 상원사에서 월정사로 이어진 선재길은 말 그대로 내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었다.

선재길을 걸으며 만났던 여러 가지 들꽃들. 발로 스치고 지나기에만 바빴던 이 들꽃들의 이름이 선재길을 걷는 동안은 유난히도 마음을 움직였다. 너도바람꽃, 회오리바람꽃, 피나물꽃, 동의나물꽃…. 사진으로는 꽃 모양이 바로 보일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작은 꽃들이다. 열пят 색깔은 같아도 모양도, 잎도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 있는 꽃들…. 서로 다른 모습들 모두가 존중 받는 한국 사회를 소망하며 길을 걸었다.

걷기를 시작한 상원사에 있던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아쉽게도 그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보 제221호 목조문수동자좌상. 문수동자가 지혜를 관장한다는 것을 알고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를 빌어보기도 했다. 국보 제292호 평창 상원사중창권선문(한글로 된 가장 오래된 필사본)도 보았고, 세조의 목숨을 구했다는 고양 이석상도 새로웠다. 고양이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것이 맞겠다. 고양이가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 정도로 생각했었으니까….

특히 사적 제37호 오대산 사고를 돌아보면서 ‘기록’과 ‘기록 보전’의

중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국보 제48-1호인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은 보수공사 중이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국보 제48-2호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여전했다. 의궤박물관과 성보박물관도 주어진 시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소중한 유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위대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했다.

1951년 1.4후퇴 당시 오대산 상원사의 소각 위기를 온몸으로 지켜내셨다는 한암스님의 얘기는 역사를 지키고 만들어 가는 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선재길을 걸으며 얻은 많은 깨달음을 마무리하는 표지 글귀,  
‘오대 서약!’

하나, 다른 생명을 아끼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둘, 남의 것 욕심 내지 말고 자기 살림을 아깝시다.

셋, 맑은 몸과 정신을 지니고 바른 행동을 합시다.

넷, 남을 존중하고 말썽을 아깝시다.

다섯, 밝은 생활을 하면서 좋지 못한 것을 하지 맙시다.

지키며 ‘나’를 찾고 싶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천년 숲길 오대산 선재길, 나를 찾아가는 길



부처님 맞이로 분주한 월정사, 덕분에 우리까지 환영을 받는 기분^^





오대산 선재길에서 아름다운 야생화 찾기!



우리가 무심히 바라보는 옛 사찰도, 이를 묵숨 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찾아가 마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포문동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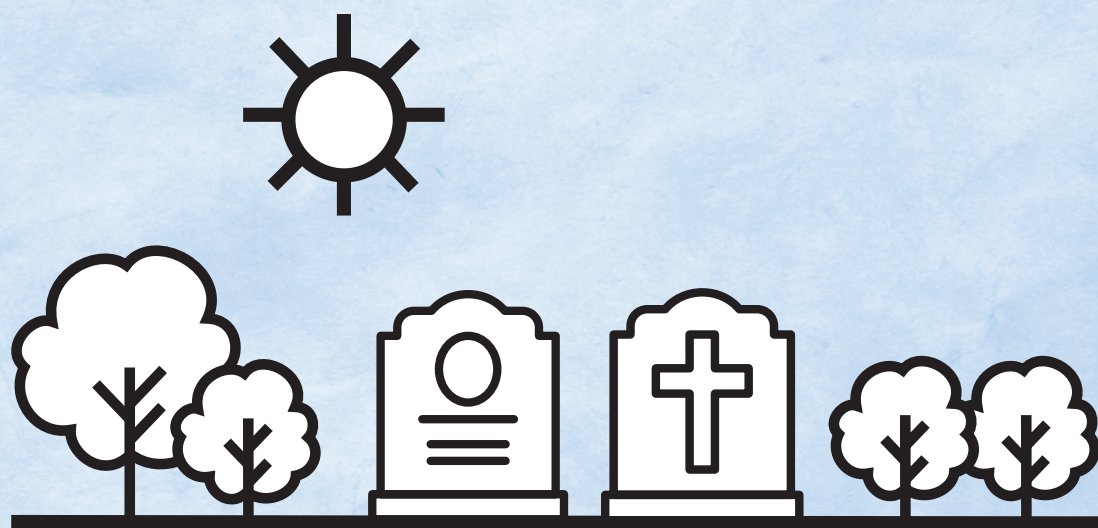
# 2

PART

---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오월의 역사길





# 2020년 오월의 역사길 역사문화답사

김효문 / 강원교육연구소

## 1.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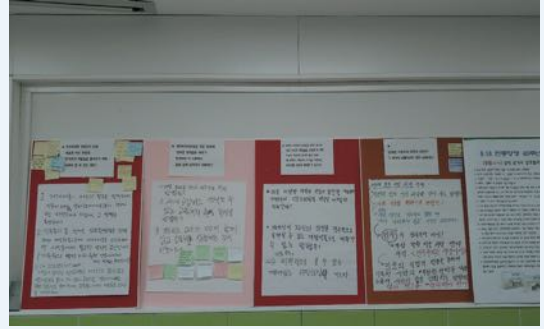
강원교육연구소에서는 5.18기념재단과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 주관하여 동아시아 역사 문화 이해를 위한 오월역사길 역사문화답사를 준비하였다. 이번 답사는 연구소에서 모두 6명의 강사들이 나서서 원고를 쓰고 해설을 맡았고, 함께 만들어 간 시, 노래, 영상으로 바라본 오월은 더욱 푸르렀다. 연구소 회원과 교사 등 모두 30명이 참가하였으며, 주제도서 《망월》,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5.18민중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월 역사 현장을 찾아 실천을 다짐했다. 광주 망월동 묘역 - 민주묘역 - 전일빌딩 - 옛전남도청에는 민중항쟁 40년 그날의 기억이 서려 있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 2. 일정

날짜	세부일정
5.2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0~20:00 독서 토론회 (봄내중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민주주의와 독서토론 5.18 40주년의 역사적 의미</li> <li>- 강사: 한명숙(강원교육연구소)</li> <li>- 주제도서 《망월》 / 참고도서 《소년이 온다》</li> </ul> </li> </ul>
5.3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00 춘천 출발(호반체육관 종합체육회관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00 버스 문학관 및 영화관 1</li> <li>→ 11:00 고군산군도 선유도 도착 - 중식</li> <li>→ 13:00 고군산군도-변산반도 답사</li> <li>→ 16:00 오월길 답사 1 광주 망월동 묘역 도착 → 5.18민주묘역 답사(시 낭송)</li> <li>→ 18:00 석식 → 19:00 숙소(중소벤처기업청 호남연수원) 도착</li> </ul> </li> <li>● 20:00 특강: 강원지역 5.18항쟁의 역사(황기면) → 22:00 휴식</li> <li>● 5월 강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오월 독서 토론(한명숙)</li> <li>- 주제: 오월 항쟁 전개(김효문)</li> <li>- 주제: 오월 영화 상영(원영만)</li> <li>- 주제: 오월 음악 감상(김원영)</li> <li>- 주제: 강원 오월 항쟁(황기면)</li> <li>- 주제: 오월 서시 낭송(김진규)</li> </ul> </li> </ul>
5.29(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00 조식(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20 숙소 출발</li> <li>→ 09:00 오월길 답사 -2 → 전일빌딩 → 오월미술관 [우리가 그곳에 있었네] 특별전</li> <li>→ 분수대 → 옛전남도청 시민군 본부</li> <li>→ 12:30 중식 → 3:30 광주 출발 → 버스 음악관 및 영화관 운영</li> </ul> </li> <li>● 17:00 춘천 도착</li> </ul>



### 3. 사진



## 오월 민중길을 다녀오면서

김원영 / 강원교육연구소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을 통해 시민권/시민성이 무엇인지 느끼는 경험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또한 가치를 숙고하고 앎을 내면화하는 과정 없이 행동만 이끌어내는 교육 역시 행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첫째 이유는 민주시민교육과 시민단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편견에 부딪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제도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을 학교의 관리자가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나름의 방법으로 그에 대응하게 된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고, 교사와 활동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교사는 활동가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학교의 활동에 기여이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인식하고 한편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업무가 과중하며 학교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가는 교사가 지속성을 갖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체가 갖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태도에서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인식을 통해 교사와 활동가는 상호협력의 필요성과

이유를 발견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상호협력의 모습은 기획과 관찰 시키기, 상호 멘토링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먼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교사들은 기획력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하고, 기획한 것을 관찰시키는 추진력 또한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교사와 활동가 사이에는 상호 멘토의 관계가 형성되어 두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안목과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활동가는 교사로부터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을 상대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특성, 교육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정에서 교육 목적과 내용,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 기획/조율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것은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5.18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한 오월길 답사

김재중 / 강원교육연구소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선유도를 거쳐서 광주 5.18민주항쟁의 역사 현장을 다녀왔다. 답사여행에 앞서 5.18과 관련 있는 책을 읽고 토론회를 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답사여행보다도 알찬 답사여행이 되었다.

나는 5.18의 역사 현장과 망월묘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선유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난 후에 5.18 현장을 답사하게 되니 더욱 강하게 그 참상이 느껴졌다.

계엄군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한 시신을 옮겨와 합동으로 위령제를 지낸 장소인 구(舊) 망월묘역에 도착하여 희생자들을 위하여 묵념을 하고 5.18민주묘역을 둘러보았다. 답사하고 나서 가슴을 찡하게 하는 두 분의 희생자가 생각난다. 부상자들을 위하여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계엄군의 총에 희생당한 여고생 박금희와 일신방직에서 근무하다가 5월 항쟁으로 직장이 문을 닫자 고향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주남마을에서 계엄군 총탄에 맞아 죽은 18살 여공 김춘례이다. 어린 나이지만 부상자들을 위하여 애처로울 정도로 여러 번 헌혈한 착한 여학생과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가난한 소녀가 아무런 죄도 없이 희생되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로 평범하고 죄 없는 많은 국민을 학살하고도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가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광주는 계엄군에게 점령당했지만 그들이 흘린 피는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흘린 피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이 더욱 앞당겨지



고 있기 때문에 5.18은 성공한 민주항쟁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숭고한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잘못된 욕심  
으로 가득찬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5.18정신으로 민주  
화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광주의 오월, 그리고 나의 ‘오월의 노래’

김정민 / 가정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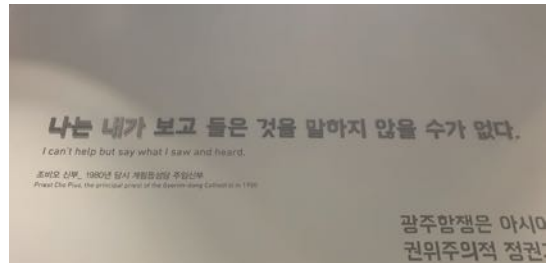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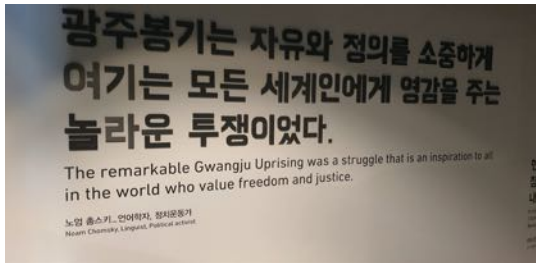
“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음음음...”

-〈오월의 노래〉1절

2020년 5월에도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 앉으면서부터 가슴 속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다. 외신 기자가 찍은 위험한(?) 비디오 속에 나오는 캐비닛에 갇히는 꿈을 자주 꾸던 1989년 그해, 〈오월의 노래〉를 정말 많이 흥얼거렸다. 누가 권했는지, 왜 그 책을 갖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신입생이 되어 읽은 첫 책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였다. 책을 읽으며 서러운 눈물이 줄줄 흘렀다. 선배들이 광주에 빛을 쬔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광주에 진 빛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이에 제법 어른이 되었고, 이제야 제 발로 찾아간 광주, 그 오월의 묘비들은 아직도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책에서, 사진에서, 강연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들었건만, 직접 둘러본 광주의 오월은 낯설었다. 믿기지 않는 학살이 사실로 체감되는 순간들이 너무 아프고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다. 의연한 척, 얇은 웃음으로 위장해 보았지만 내 마음은 5.18 광주처럼 자꾸만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 들었다.

날이 맑고 밥이 맛있고 사람들이 정겨운데도, 속은 거북하고 머리는 팽 돌고 몸은 가볍지 않았다. 40년된 묵은 거리를 거니는 내 마음이 그럴진대, 5월을 직접 겪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 마음과 몸이 어떠실



까, 한 맺힌 이 고통의 세월을 ‘으째야쓰꼬’, 살아남은 자들이 도저히 성할 수가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니, 가끔씩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답사 가는 길에 들른 밥집에서 동지들과 한잔 술을 주고받았다. 히히 덕거리는 내 술잔이 민망하여 얼굴 붉히는데 원영만 샘계서 한 마디를 건네셨다. “거길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 울컥, 둘째 잔부터는 여행을 즐기는 술잔이 아닌 게 되었다.

싸우러 가지 않고 구경하러 간 2020년의 내가 더 많은 빛을 지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되었다.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저 추모하고 기도하고 되새기며, 오월의 광주를 시민의 목소리로 기억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다. 돌아와서 내내 광주에 진 빛은 영원히 갇지 못할 것만 같아 속이 상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행전 4, 20)는 조비오 신부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았다.

‘아, 오늘 하루 역사를 등지지 않고, 역사에 빚지지 않고, 시민의 역사 현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해야겠다’ 하며…. 우수수 슬픈 감정들이 떨어진다.

“이렇듯 봄이 가고 꽃 피고 지도록, 멀리 오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다 하도록, 해 기우는 분숫가에 스뵈던 냇이 살아, 양천의 눈매 되뜨는 이 짙은 오월이여,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음음음…”

-〈오월의 노래〉2절

# 오월의 제가 오월의 당신께

- ‘길 위의 마주침’에서 기억하다

박명희 / 성수고등학교

5.18민중항쟁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5.18민주항쟁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음을 광주에 가서야 알 수 있었다.

떠나기 전 《망월》(상, 하)을 읽고, 상호협력토론을 했다. 그때 나의 질문은 ‘김세환, 고종사 비극의 원인은?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이었다.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40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들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주’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월길을 안내해 주셨던 5.18기념재단 관계자 분과 함께 옛 전남도청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전남대는 5월에 대동제를 열지 않는데, 타지에서 온 신입생 중에는 왜 우리 학교만 5월에 축제를 하지 않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였다. 5월은 추모행사로 경건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음을 들으며, 우리의 무지가 희생으로 ‘민주’를 회복한 분들께 얼마나 큰 무례인가를 깨닫고 꼭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그러한 대동세상을 추구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다.





## 재학 군, 그곳에서 잘있어요?

박윤옥 / 간동고등학교



지난 5월, 선생님은 특별한 곳을 다녀왔어요. 그곳은 간동면에서 가려면 차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이지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가깝게 느껴지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광주예요. 전라남도 광주. 그곳에서 선생님이 만나고 온 한 소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해 보려고 해요.

광주 답사를 할 때는 늘 5.18 묘역부터 시작해요. 그곳은 5.18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곳으로, 현재 680기의 묘가 있어요. 그곳에 선생님이 만나고 온 소년도 잠들어 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문재학. 당시 나이는 여러분과 같은 열여섯이고, 광주상고에 다니고 있었어요. 5.18 마지막 날인 27일, 계엄군의 상무총정작전(도청 재수복 작전)에 희생된 학생이에요. 그 당시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10대 시민군이 3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1명이지요.

현재 생존해 계신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문재학 학생은 가족에게 양보하고 배려심 많은 따뜻한 아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찌다가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갔을까요?

그 사연을 들어볼래요? 때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갔어요. 이에 맞선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목표가 되어 계엄군의 과잉 진압이 들어온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계엄군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보고 시민들이 일어나면서 5.18이 시작되었어요. 급기야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감행되



고, 광주 시민들은 친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게 돼요.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부터 문재학이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유족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전남도청 재수복 작전)'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25일, 그리고 26일 어머니는 문재학 학생을 도청으로 두 차례 찾아갔지만 집으로 데려오지 못 했다고 해요.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한 초등학교 동창 양창근(16세·송일고1) 군 시신을 수습도 못했는데 그냥 놔두고 갈 수 없다고 하였대요. 그리고 27일 당일 통금 시간인 오후 7시, 집에 전화를 걸어 차가 끊겨 못 간다는 말을 한 것이 어머니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고 해요.

당시 문재학의 나이는 여러분과 같은 16살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얼마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친구와 함께 끝까지 도청에 남아 싸우는 것을 선택하였지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가만히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봐요. 참 어려운 일이겠지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는 것은. 그래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민주주의는 고귀한 것이지요. 선생님은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광주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5.18 묘역에 잠든 문재학 학생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함께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잘 있는지….



문재학의 묘



양창근의 묘



## 작은 발걸음

박혜진 / 유봉여자고등학교



광주.

오월의 광주. 오월의 광주 금남로.

광주의 금남로를, 그리고 5.18묘역을 찾아가는 제 발걸음 꽤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은 40년 전, 광주 민주항쟁의 가슴 아픈 상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더불어, 말로는 광주의 아픔, 민주화의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상처의 현장을 대면하지 못하겠다는 두려움 등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광주를 지나쳐 여행을 다니며 고속도로에서 멀리 보이는 광주를 바라보기만 했던 제 모습이 딱 5.18민중항쟁에 대한 저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5월 30일. 광주 5.18 묘역으로 가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 내가 광주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묵념과 함께 망월묘역을 돌아보다 저보다 두 살 많았던 한 소년의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열일곱 살이던 1991년 5월 18일, 19살 고3이었던 고(故) 김철수 학생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저는 5.18을 알기나 했을까요?

교과서 한구석에 두어 줄로 슬쩍 언급되었던 5.18.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고 얼버무렸던 5.18.

그 모습이 너무도 어색하고 이상해서 또렷하게 떠오르던 5.18!

열아홉 살 소년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세우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열사의 묘지 옆에서 5.18 다큐 영화 속 ‘김 군’을 떠올립니다. 극우세력에 의해 북한 특수군 ‘광수1호’로 지목된 녀마주이 ‘김 군’. 저 무명열사의 묘지 어딘가에 ‘김 군’이 있진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0년이 지나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겠지요.

이번 오월길 답사를 통해 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저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의 육성으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희생과 노력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답사 후 첫 수업에서, 저는 5.18 민중항쟁 오월길 답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애들아, 너희 5.18 광주민중항쟁 알고 있지?”

“네!”

“그럼 혹시 광주의 그 현장은 가봤니?”

“아니요.”

“선생님도 이제야 그곳을 가봤어. 선생님 얘기 듣고, 나보다는 먼저 그곳을 꼭 방문하길 바란다. 꼭 기억해야 한다.”

“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5.18 역사문화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양혜숙 / 봄내중학교



5월 광주엔

잠들지 못한 붉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망월동엔 억눌린 설움이 가득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로 메마른 역올함을 적셔줄 수 있을까,

선부른 동정이 될까 마음 무거웠습니다.

《망월》을 보고, 《소년이 온다》를 읽고 비경쟁 상호협력토론을 통해 5.18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답사 길을 뜻 맞는 분들과 함께 할 기회가 주어지니 발걸음 가벼이 광주로 향했습니다.

5.18기념금남로, 전남도청.

친구들과 떡감던 아이, 벗어진 신발을 가지러 가던 소년, 결혼을 앞둔 새신부, 남편을 마중 나간 부인, 친구를 지키려던 청춘들이 공수 부대의 무자비한 진압과 총격에 짓밟힌 현장을 걷고 있는 멀쩡한 나의 두 발이 부끄러웠습니다.

오가는 버스 안에서, 오월 문화현장에서, 숙소인 연수원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문학과 영상, 음악과 가요로 느끼고, 강원의 오월 민주주의 역사 강의를 통해 내 고향 춘천이 그해 5월 광주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불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 투사 선배님들이 가까이 계심에 감동했습니다.

5.18기념 묘역에 올려 퍼지던 김진규 선생님의 <오! 광주여> 낭송 소리와 정태춘의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이 묻기 전까지’라는 노랫말이 아직도 쟁쟁하니 귓가에 울려 퍼 집니다.

감동적인 연수를 마련한 강원교육연구소 관계자 분들과 한명숙 선생님을 비롯한 강사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남도청 5.18기념회관 앞에 청초하게 피어난 흰꽃에 담아 올립니다.



## 묘비번호 8-1 박기현

이운옥 / 봄내중학교

광주 5.18 묘역을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몇 년 전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과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읽을 책을 고르다 우연히 읽게 된 책 때문이었다. 《난 아프지 않아》라는 책은 현직 작가 여섯 명의 신작으로 꾸려진 청소년 테마소설집이다.

책 속에 이경혜 작가의 〈명령〉은 5.18광주민주항쟁을 다룬 내용이였다. 소설이 끝나는 책 끝 부분에 ‘묘비번호 8-1 박기현’이라고 써 있었다. 박기현은 1965년생으로 1980년 당시 그는 중학교 3학년이였다. 책 속의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이었고.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은 무엇인가로 누른 듯 답답해졌고, 광주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후 광주 5.18묘역에 갈 기회가 생겼고, 박기현 묘를 찾아 사진을 찍고, 학생들에게 책 내용과 함께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올해에도 함께할 기회가 있어서 그의 묘에 가서 묘비 사진을 찍었다. 2019년에 찍은 사진과 2020년에 찍은 사진이다.

‘묘비 번호 1-08. 박기현

(1965년 2월 8일 생, 1980년 5월 22일 졸)’



# 광주의 슬픔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정순애 / 가산초등학교



1980년 5월의 광주!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둘러앉은 도청 광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분수대에 빙 둘러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으리라.

4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하루 빨리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져 광주 슬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빈다.





## 망월동에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기를

이은희 / 홍천중학교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소년이 온다》, 한강

망월동 묘지를 보며 떠오른 소설의 한 구절이다. 작품 속 인물인 ‘은숙 누나’가 ‘그런 군인들의 반란이었다. 그 사람들은 나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대답했지만, 나에게도 그 대답은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렸다. 태극기 아래 봉분 앞 누군가가 토해놓은 피 같은 붉은 꽃과 망월동 묘지의 묘비명에 가슴이 저릿저릿했다.

날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쾌청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더 먹먹했다. 평소 사진을 잘 찍는 편이 아닌데도 나는 카메라를 켜고 이 모순된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가슴 아픈 묘비명을 찍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사람에게 보냈다.

그가 답했다. ‘그러게...’ 그의 답을 보며 ‘나는 오늘 처음으로 행동했고, 1명에게 공감을 얻었으니 이제 제3의 증언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머리로 알았던 것을 가슴으로 느꼈으니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답사 일정이 시작되던 처음에 나는 언젠가는 꼭 와보고 싶었던 5.18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며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5.18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 ‘눔눔눔’ 전시 속 막말들 전시와 오월길 곳곳에 붙어 있는 ‘진상규명’, 이 네 글자를 보며 5.18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보다 더 깊은 오명’이 그들 무덤 앞의 꽃을 더 핏빛으로 더



붉게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그들의 피를 먹고 자란 이 땅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꽃 피지 못했는가? 망월동 묘지 사이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눈에 담으며, 이 땅의 4월, 5월, 6월 무수히 많았던 민주항쟁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했다. 광장에서 촛불 켜고 혹은 태극기 들고(더러는 창피하게 성조기를 들고) 하고 싶은 말만 부르짖는 민주주의 말고 말이다.

망월동은 옥토끼가 달을 쳐다보는 형국의 명당이라 한다는데 내겐 그 동화적인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청소차에 실려 와 묻힌 무명열사들의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보름달이 보인다. 망월동에 다시 그 동화적인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길, 그래서 이제 뽕 뚫려 시린 그들의 가슴을 넉넉히 가득 채워주길, 춘천의 보름달에게라도 빌어야겠다.



## 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

이현숙 / 반곡초등학교



몇 년 전에 5.18 묘역에 한 번 갔었고, 역사의 진실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망월》을 읽으면서 5.18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자세히 알고,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다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정말 ‘광주사태’인 줄 알았던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학교에서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느끼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다.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동호는 중학생 3학년인데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팠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시신을 보는 것조차도 무섭고 힘든 일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5.18이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현실 상황에서 겪어내야 했던 일이라는 것이 마음을 무겁고 먹먹하게 만들었다. 또한 평범하게 삶을 살던 대부분의 사람이 국가를 지키는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 총을 맞고, 또 그들과 싸우고 수감생활을 하는 등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망월묘역에 도착해 묵념과 함께 간단한 의식을 진행하였다. 묘역에는 우리 답사팀 말고도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다. 5.18을 잊지 않고 묘역을 찾는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묘역을 둘러보면서 소중한 삶을 이렇게 짓밟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었다.

김진규 선생님의 〈아~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낭송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이 아파왔다. 시 낭송을 워낙 잘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5.18 묘역을 둘러보고 그 현장에서 가슴 아픈 역사를 시로 표현한 것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튿날 우리는 광주 시민군의 최후 항쟁 흔적이 가득한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역사의 금남로 현장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둘러보았다. 5.18 관련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현장에서 살펴봄으로 인해 더욱 가슴에 다가왔고, 마음이 아파왔다.

이번 오월길 답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광주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생각하는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한다’는 프랑스 비평가의 말이 떠오르면서 이후 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다.



## 오월길, 아직 끝나지 않은

전병천 / 소양고등학교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은 2019~2020년 두 번이다. 2019년 5.18 답사 때는 암울하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 기분이 답사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 당시 잊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쏜 군인들의 총알이다. 얼마나 아픔을 느꼈을까 아니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죽었을 것이다. 5.18 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 학생, 노인 가릴 것 없이 폭도로 몰아서 죽이고 언론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알게 된다. 책이나 영화, 언론에서 소문으로 들은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내가 5.18을 알게 된 것은 책도 아닌 영화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이다.

2020년 오월길 답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5.18에 대한 사실 규명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사명인 듯하다. 잊지 않겠다.

인상 깊었던 것은 당시 피가 부족해 하루 3번이나 병원에 가서 헌혈한 여성이 군인에게 총을 맞아 다시 병원에 주검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늘은 이런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고 인면수심(人面獸心) 전두환, 노태우를 아직도 세상에 허락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전두환은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 오래오래 살아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보내줄 수 없다.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도 묘역에 안장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 민족의 아픈 역사지만 바로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남겨야겠다. 5.18

이후 1987년에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었으며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가반란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이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11년에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 되었다. 2018년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치권 다툼으로 지지부진, 2020년 아직도 진행형이다. 독일의 나치범은 현재도 찾아 처벌하는 것처럼 꼭 진상규명이 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가해자를 모두 찾아 처벌해야겠다.



## 광주정신이 속삭인다

정연실 / 양덕중학교

2020년 5월의 마지막 날, 광주가 내게로 왔다. 아니, 광주정신이 내게 속삭였다. 5월의 광주정신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열어가는 키워드라는 것을...

비경쟁 독서토론의 주제도서 《망월》과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된 이번 답사는 ‘광주를 겪은 세대와 광주를 겪지 않은 세대가 연대하며 이 사회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라는 질문과 내내 함께였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은 5.18 광주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5월 마지막 날 함께 찾아간 광주는 40주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유적들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전일빌딩은 단장되기 전의 모습을 본 내게는 실감이 좀 덜했던 것 같다. 헬기 사격의 탄흔 보존 부분을 가장 신경 썼으면 한다.

하지만 전남도청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웠다. 복원은 광주를 왜곡하지 않고 ‘광주를 겪지 않은 세대’에게 주는 의미를 가장 우선했으면 한다.

광주에 다녀오면 항상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헌법 정신에 5월 광주정신이 명문화될 것이라 믿는다.



사전 독서 활동



푸른 하늘이 시리게 다가오는 전일빌딩 옥상





## 2020년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를 다녀와서

최박희 / 소양중학교

코로나19로 오랜 시간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과 가정에만 머무르다 오랜만에 현장답사여행을 가게 되어서 가기 전부터 설레고 기대감이 컸다. 광주의 망월동국립묘지는 2년 전에 다녀왔지만 또 가보고 싶어져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 가는 길에 들른 군산의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며 서해를 막아 더 넓은 영토를 만들겠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에 대한 배려는 없이 방조제를 쌓아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방조제를 쌓으며 서해에 떨어져 있는 섬들을 연결하여 섬이지만 연육교로 연결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쉽게 섬을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자연환경을 접하게 된 것은 편한 일이다. 고군산군도 중 가장 대표적인 선유도는 이름처럼 아름다웠다. 섬을 일주하면서 곳곳을 돌아본다면 더 좋은 여행이 될 듯했다.

선유도를 지나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광주에 도착하여 망월동 묘지에 도착하였다. 망월동 묘지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 것 같다. 왼편으로는 광주 시민묘지로, 우측은 5.18 관련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 묘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나의 눈을 끈 것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광주 망월묘지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도 계시고,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는 분, 생소하지만 큰일을 하다 가신 분 등등. 모두 자신의 행복과 편안함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었다. 묵념을 하고 묘지를 돌아보는데 내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나와 나이가 같은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나만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하여 지금까지 너무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망월동국립묘지는 5.18 관련 사람들을 위한 국립묘지로 조성되어 계획적으로 잘 보살펴지고 있다. 여느 국립묘지와는 관리면에서 차이가 나 웬지 망월묘역에 잠들어 계신 분들께 더 죄송스런 마음까지 든다.

국립묘지에 잠들어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이름 없는 무덤도 있고, 주인이 없는 많은 빈 무덤도 있다. 이 모두가 역사의 한 장이므로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우리 역사이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김진규 선생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 낭송을 들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동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에 우리 모두 함께!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며 지금까지 이 공간을 다녀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붉은 꽃과 망월동 묘지 앞.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 ‘함께 읽기’로 오월 역사길을 걷다

한명숙 / 봄내중학교

강원교육연구소 인문교육공동체의 오월 답사길은 빛고을로 가는 길이다. 1박 2일의 여정으로 남도를 향한 먼 길이었지만, 하루 전 저녁부터 봄내중학교 도서관에 모여 보다 치열한 토론과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 1박 3일의 여정인 셈이다. 참가자들은 미리 3종의 책 《망월》(상·하, 김성재 글, 변기현 그림), 《소년이 온다》(한강), 《은주의 영화》(공선옥)를 읽었다.

해마다 오월 광주의 역사를 찾아 비장한 마음으로 구묘역부터 신묘역까지 한 분 한 분의 묘비글을 읽고, 금남로와 도청 광장 역사의 현장을 더듬었지만, 올해는 사전모임으로 독서토론활동을 함께하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는 해이기에 광주로 가는 길이 더욱 의미 있었다.

5. 29. 금요일 저녁. 봄·봄도서관에는 함께 읽기에 동참한 30여 명의 교사들이 모였다. 각자 책을 읽으며 사전에 제출 받은 질문들만으로도 깊은 사유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 《망월》(상,하) 함께 읽기와 상호협력토론 활동

- ◆ 5.18 역사와 관련하여 책 제목 《망월》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 ◆ 역사적 사건에 대해 ‘황창배’와 ‘김세환’의 태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 ‘김세환’, ‘고종사’ 비극의 원인은?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 ◆ 아버지 ‘김세환’의 실어증은 무슨 의미일까?
- ◆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었던 아버지 세환, 평생 무기력증과 실어증에 시달렸던 그가 살인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검사임용 취소와 파혼에 까지 이르게 되자 태진은 궁금해진다. 무엇이 그토록 무기력했던 아버지 세환을 움직여 ‘녹슨 칼빈’으로 ‘엄기웅(60세)’을 살해했는가?
- ◆ ‘김태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 ◆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걸까?





- ◆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진짜 가해자는 뒤로 빠져 있으면서 피해자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치권력이 무섭다.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가해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왜 쉽게 드러나지 않는지 답답하고 궁금하다. 그들은 어떻게 정치권력을 유지하며 진실에서 멀어지도록 국민을 눈멀게 할까?
- ◆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세대'와 '광주를 겪지 않은 세대'가 함께 연대하며 이 사회에서 균형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 ◆ 올해는 세월호 6주기, 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하자고 한다.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 ◆ 외세 압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려면 가장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
- ◆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 갈수록 돈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 ◆ 광주의 아픔에 눈감았을 뿐만 아니라 왜곡보도로 국민들을 눈멀게 한 언론, 지금도 여전히 아니면 말고 하며, 경제권력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언론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 ◆ 5.18 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그로 얻은 부당한 권력을 누리며 동조해 왔던 군부독재자들과 그 기득권의 중심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기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까닭은?

각자 책을 읽으며 사전 제출된 15개의 질문 중 5개를 선택, 자연스럽게 5개의 토론방이 만들어졌다. 20분씩 3회의 자리 이동을 통해 상호협력토론 활동이 이어졌다. 첫 질문은 토론을 통해 거듭하여 새로운 질문으로 확장되고, 마지막은 하나의 명제로 정리했다.

5명의 토론방장이 질문의 확장 과정과 최종 정리 명제를 발표하며 소통과 나눔의 공유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가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했는지 두 시간이 훌쩍 흘러간 줄도 몰랐다. 독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에서 시작하지만, '함께 읽기'와 '생각 나눔'이라는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빚어낸다. 일과를 바쁘게 마치고 고단함이 잔뜩 묻어나던 초저녁의 모습들은 간데 없고, 늦은 시간에 도서관을 나서는 얼굴들은 유난히 빛나 보였다.

**5. 30. 토요일 이른 새벽.** 남도로 향하는 버스에 한 명의 지각생도 없이 지난 밤 책 속의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마음들로 진중한 설렘이 가득했다.



포문동 워크숍

# 3

PART

---

동아시아를 잇는 바닷길  
울릉도 옛길





# 2020년 울릉도 바닷길 역사문화답사

김효문 / 강원교육연구소

1. 소개  
강원교육연구소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 주관하여 동  
시아 역사 문화 이해를 위한 울릉도 역사문화답사를 준비하였다. 연구소 회원과 교  
사 등 모두 20명이 참가, 사전에 울릉도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다양한 인문학 자료  
를 읽었다. 답사 내내 맑은 날이 지속되었고 모처럼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에  
서 해방된 시간이었다. 2박 3일 동안 매일 30리 이상을 걸으며 울릉도 사람과 자연  
과 함께 땀을 흘렸다. 돌아오는 날에는 다들 울릉도 특산 호박엿, 삼나물, 오징어, 석  
향 등을 구매해 함께하지 못한 강원도 지인들과 나누며 답사를 함께 추억했다.

## 2. 일정

날짜	세부일정
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특강-2 (17:00~봄내중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 / 강사: 김진규(연구소)</li> <li>- 주제도서: 《친구가 된 일본인》</li> </ul> </li> <li>● 울릉답사워크숍(19:00~봄내중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 안내 / 강사: 김효문(연구소)</li> </ul> </li> </ul>
8.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30 춘천 출발(호반체육관 종합체육회관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0 강릉항 도착(승선 준비, 김밥 조식) → 09:20 강릉항 출발(씨스포빌 여객선)</li> <li>→ 12:20 저동항 도착(도동항 이동) → 13:00 숙소 도착(울릉이사부호텔)</li> <li>→ 13:30 중식(따개비밥)</li> <li>→ 14:30 행남해안생태길 걷기(4km) → 16:00 동동역사문화 답사(3km) → 독도박물관</li> <li>→ 석향 전시장 탐방 → 18:00 석식 → 19:00 종합 토론(김효문) → 20:00 휴식(숙소)</li> </ul> </li> </ul>
8.1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30 조식</li> <li>● 08:30 숙소 출발 → 울릉도 해안 역사문화답사 → 거북바위 → 사자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하성하신당 → 모노레일 → 울릉등대 → 대풍감 숲길 걷기(4km) → 호박엿공장</li> </ul> </li> <li>● 11:00 울릉천국 휴식 → 12:00 나리분지 도착, 중식</li> <li>● 12:00 동아시아 특강(김효문) → 14:00 성인봉 숲길 걷기(6km) → 몽돌해변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음도 숲길 걷기(5km) → 18:00 석식 → 20:00 휴식(숙소)</li> </ul> </li> </ul>
8.1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30 조식</li> <li>● 08:30 숙소 출발 → 봉래폭포 숲길 걷기(6km) → 내수전전망대 숲길 걷기(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징어전시장 탐방 → 12:00 중식 → 13:00 저동항 탐방 → 14:20 승선준비</li> </ul> </li> <li>● 15:15 저동항 출발(씨스포빌 여객선) → 18:15 강릉항 도착 → 20:00 석식</li> <li>● 20:00 춘천 도착(해산)</li> </ul>

### 3. 사진



### 4. 거리

포항 217km / 후포 159km / 묵호 161km / 강릉 178km / 최단거리 울진 죽변 130.3km



### 5. 인구



## 울릉도 도동항에서 바라본 일출

원영만, 황선희 / 강원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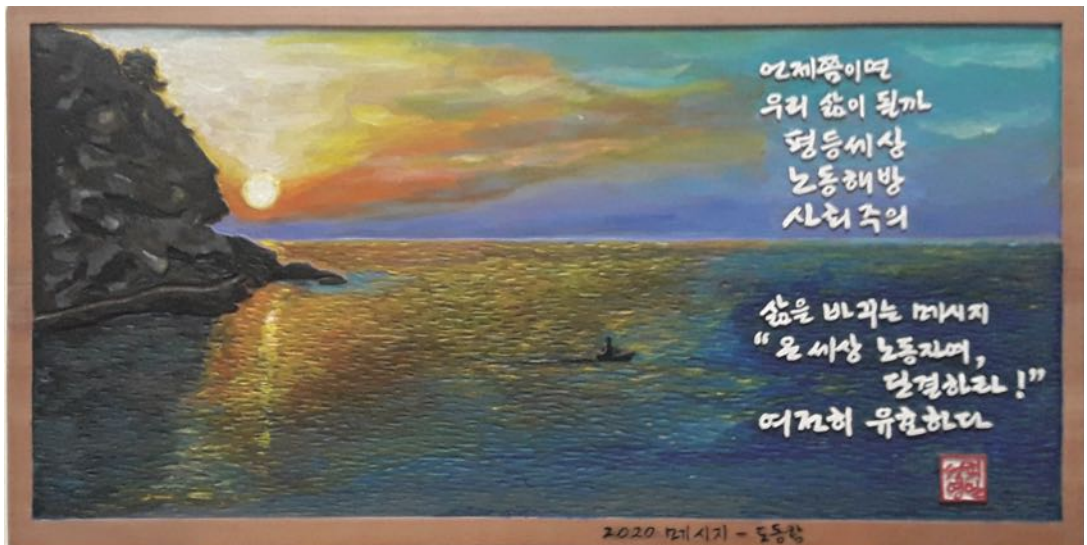
●●●  
코로나로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눈만 빼꼼 내놓고 마스크로 생활하는 삶이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다르다. 경쟁사회, 돈이 생기는 일이면 자연과 인간을 서슴없이 파괴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 세상을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

온 세상이 공적으로 함께 공유해야 하는 영역을 모두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맡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운 좋게 2박 3일 울릉도 답사를 마쳤다. 화산섬 울릉도 도동항에서 바라본 일출이다. 오랜 세월 견디며 살아가는 향나무와 바위 모습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서각으로 만들어 보았다.

서각을 하는 동안 석향의 향기를 느꼈다. 글을 쓰고 파는 일은 내가 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는 일은 황선희가 했다.







## 오래도록 그리움으로 남으리라

고미정 / 봉의중학교

여행지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곳에서 보았던 빼어난 경치일까? 특별한 음식일까?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난 일들이지만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가족여행 기억이 있다. 순천만 전망대에서 주황빛으로 지는 해에 잠시 우리 안에 스며들던 겸손한 마음과 충만한 평화, 중국여행길 호텔에서 방에서 술잔 기울이며 인생을 말씀하시던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낮고 느린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들. 그리고 보면 여행이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는 건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느낀 짝한 감동과 마음의 나눔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울릉도 여행도 내겐 오래도록 그리움으로 남을 딱 그런 여행이었다. 20명 참가자 중 나와 친분이 있던 분은 겨우 네 분, 나머지는 잠깐 뵈는 적만 있거나 처음 만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다. 불편하지도 않았다. 마치 함께 산 지 오래된 사람들과 떠난 가족여행처럼 편안했고, 힘겹게 오르내리던 답사길에 서는 끈끈한 연대감마저 느껴졌다.

사실 울릉도 여행을 오기 전 몇 달간 몸이 많이 아팠다. 코로나19 상황, 올해 옮긴 새로운 학교 적응 문제, 이전 학교에서의 느꼈던 단단한 소속감이나 동료들 간의 공감 소통의 부재 등 힘들었다. 이렇게 지친 나에게 이번 울릉도 여행은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고,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울릉도 여행이 매력적이었던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곳곳에 빼어난 절경을 품고 있는 울릉도. 하지만 결코 수다스럽게 자랑하거나 뽐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하루에 수백 명씩 관광

객이 쏟아져도 바닷가 상가와 마을은 침착하고 여유로웠다. 상인들의 혼한 호객행위도 보기 힘들었다. 식당은 정갈했다. 소박한 나물 위주의 반찬, 조미료 없고 자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매 끼니 빼놓지 않고 차려지는 부지깽이 나물은 담백함 그 자체였고, 난생 처음 먹는 따개비칼국수, 따개비밥도 별미였다.

수수하거나 소박한 느낌의 울릉도. 하지만 2박 3일 우리가 함께 걷거나 오르며 품어본 해안생태길, 관음도, 봉래폭포, 죽도전망대 등은 유별난 아름다움으로 마음 속에 새겨질 것이다.



# 잊지 못할 울릉도의 밤

김영복 / 평창고등학교

## 행운의 섬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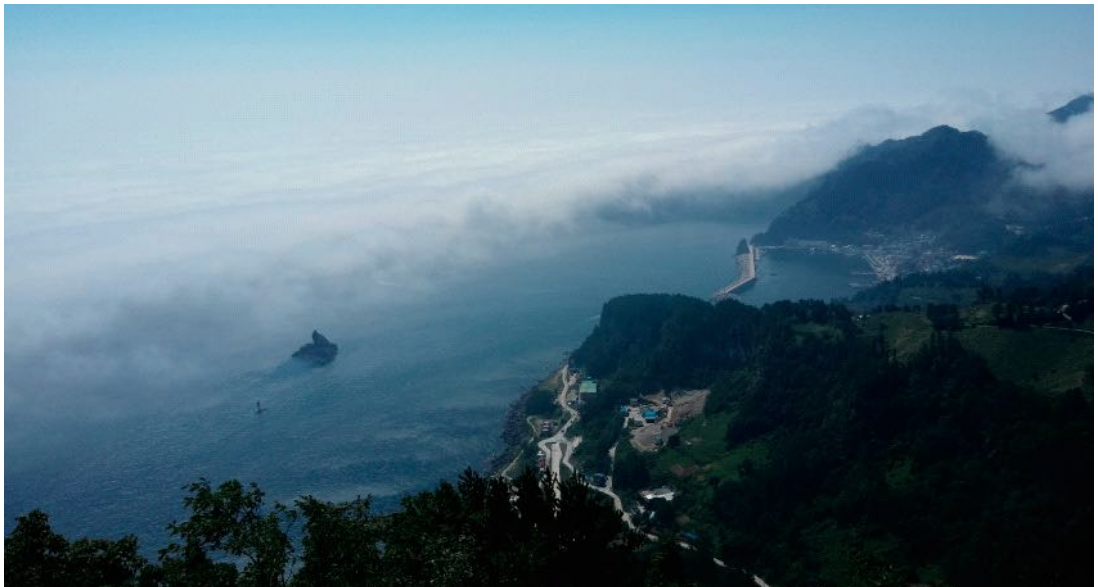
17일 아침 일찍 울릉도에 가기 위해 강릉항으로 차를 몰았다. 주차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고 여객터미널에 가니 반가운 이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순탄한 여정을 예고하듯 잔잔한 파도를 밀어내며 울릉도에 도착했다. 열대나라의 어느 섬 같은 느낌을 주며 육지와 다른 섬 특유의 비경과 나무들이 멋있었다. 울릉도는 내게 행운의 섬이었다. 답사기행이 일찍 마감이 되었다 해서 아쉬웠는데 출발 이틀전에 빈자리가 생겨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고, 울릉도는 연중 쾌청한 날이 50여 일이라는데 답사기행 3일 동안 우리를 위해 쾌청한 날을 보여주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두세 번의 시도에 올 수 있는 곳을 나는 한 번에 허락 받았다. 그렇게 울릉도는 코로나 블루로 방학도 짧고 별 계획도 없었던 나에게 커다란 행운을 준 섬이었다.

##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행남해안산책로

첫날 예정했던 케이블카와 독도박물관을 못 보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행남해안산책로로 향했다. 지질 명소로 화산 암벽을 따라 산책로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화산 암석과 지질 형태 설명문을 읽으며 화산이 만들어낸 울릉도의 비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발 아래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뛰어들라 유혹한다. 결국 산책로 끝에서 울릉도의 푸른 바닷물에 발만 담그는 것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달랬다.

### 존경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울릉도의 밤

울릉도의 밤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번 답사기행이 기대됐던 건 지금은 현장에서 퇴직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삶의 철학을 지키는 존경하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틀 밤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좋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나누었던 울릉도의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내수전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

# 울릉도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김정민 / 가정중학교

가정중학교는 매년 10월에 2박 3일 40km 정도 걷는 체험 활동을 가요. 인제 한계령~양구 편치볼 고개를 걸어서 넘는 거죠. 인제 내린천 약수길(소개인동-개인약수-미산리)을 36명이 함께 쭉 걸어요. 길을 함께 걷는다는 거, 요즘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길 위의 동고동락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인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 활동명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품격 있는 도전’이에요.

울릉도는 또 다른 ‘내면의 힘을 키우는 품격 있는 도전’이었어요. 함께 간 선생님들이 저의 벗이 되어서, 또 한 번 ‘길 위의 동고동락’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2박 3일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울릉도 답사는 만점이었어요. 게다가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도는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만점을 한번 더 주게 되었네요. 만점에 만점인 울릉도 답사, 정말 영원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추억될 거예요. 아마 다시 온다고 해도, 그날의 바다 빛깔과 해무에 갇힌 죽도와 구름 위의 산책 등은 못 만나지 않을 까 싶어요.

첫날, 독도전망대에서 케이블카가 멈춰서 아쉬웠는데 ‘윤옥+명희+정민=크로스!’ 해서 약수터 산길을 따라 전망대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풀숲을 헤치며 가야 했어요. ‘울릉도에는 뱀이 없다’를 몇 번이며 되뇌게 되더라고요. 울릉도에서의 첫 경험, 무진장 피약별이 었지만 남몰래 먹은 사과처럼 꿀맛이었어요. 거친 숨을 달래며 땀비를 닦으며 시내버스를 타고 도동 시내로 돌아왔을 때가 더 기쁘기는 했지만요.

울릉도 답사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이것 또한 첫 경험! 새벽 5시에 행남해안가 산책을 시작으로 행남등대(도동등대의 지역 명칭)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산책으로는 꽤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뭐 이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멋진 순간이었답니다. ‘철수네’ 가게에서도 첫 손님으로 호박식혜에 해물라면을 먹어 보다니(이거 진짜 비밀인데 살짝 \*\* 했어요, 푸하하!) 그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울릉도에서의 모든 순간은 첫사랑, 그 이상의 달콤하고 짜릿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첫날 전망대로 가는 산길도 독도박물관 입구 향나무 가게 주인 청년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말리거나 뭐하러 가냐는 말 안 하고, 되려 산행을 부추기고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업된 기분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꼭대기를 정복하게 된 것 같아

요. 둘째 날도 ‘철수네’ 가게 주인 부부가 행남등대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백을 확실하게 밀어준 거죠. 저녁 일찍 단잠을 마치고 야심한 밤에 달빛 아래 답사 마지막 밤을 아쉬워할 때, 스키와 보드 프리랜서 강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서울 사람인가 본데, 스키 타러 일본을 자주 다녔다고 해요. 스키장 아닌 제주 한라산 같이 눈 많이 오는 곳에서 자유 스키를 즐기는 사람인데, 울릉도 성인봉에서 스키를 타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쪽 울릉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썄, 성인봉 폭설 속에서 나무 숲을 가르며 스키 타는 영상을 봤는데 입이 딱, 황홀한 경지의 환호성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부럽더라고요.

성인봉을 그냥 올라도 좋을 건데, 글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산행이라니, 진짜 멋짐 폭발! 조만간 2, 3월에 꼭 울릉도에 와서 눈 덮인 성인봉을 보겠노라 공약을 하고 왔답니다. 울릉도에 살면서 울릉도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건네준 주민 분들께 다시 한번 ‘참 고마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울릉도 호박엿과 호박 젤리를 입에 넣고는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여전히 엿과 젤리가 맛있어요. 3일 동안 매일 먹었던 부지깽이나물도 며칠째 해먹고 있답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추

억의 맛을 더해 주더라고요. 아직도 울릉도적 삶을 즐기는 중입니다.

울릉도 도동항에 붙어 있던 민주노총 투쟁 현수막에 마음에 작은 미안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으면서, 우리 삶 곳곳에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울릉도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안부를 전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코로나 거부 투쟁!’

- 2020년 8월 26일 보름달 씬.







# 화해와 공존이 우리 곁에 있음을 되새기다

박명희 / 성수고등학교

●●●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2020년 상반기는 54일 간(중부)의 기록적인 장마와 함께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세가 거세 온 국민의 근심이 큰 상황이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지혜로움을 발휘하기를 염원해 본다.

이번 답사가 바닷길이었기에 답사 전주까지 계속되던 장마로 조마조마하며 기다렸던 답사일 아침, 맑게 갠 하늘에 감사하며 길을 나섰다.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문동아리 답사 활동 3’은 8월 3일(월) 김진규 선생님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강연’으로 시작하였다. 강연을 통해 ‘미움 대신 사랑으로 진정한 벗이 된 일본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 《친구가 된 일본인들》(이동식, 나눔사),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겨레출판) 두 권의 책을 읽으며 ‘원망과 증오로는 미래가 없음’과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되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뜻깊었다.

울릉도를 떠나오던 날 새벽 다섯 시, 해안산책로, 그 길 내내 마주한 온갖 기암괴석, 그리고 해남등대에서 바라본 운무, 그 너머에 언제나 태양과 죽도와 독도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생각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고, 길을 떠나,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느 날 이 지구상에서 나 역시 거대한 자연 속 한 톨 먼지였음을 명료하게 지각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나는 보들레르의 시구처럼 ‘우리

의 무한을 바다의 유한 위에 흔들면서' 살아갈 것이다. 조금은 일찍  
나의 유한을 바다의 무한 앞에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읽고, 길  
을 떠나,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조금만 아프면서 말이다.

어떤 순간, 화해와 공존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지라도 그 길이 존재  
함을 굳건히 믿으며 그 길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서로의 연결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 울릉도는 내 고향 전지리!

박병두 / 강원교육연구소

2020년 8월 17일~19일(월, 화, 수) 2박3일은 꿈결 같은 날들이었다. 울릉도 답사 도전 네 번째 만이었다. 연중 쾌청일 수 42일 중 3일 밤낮을 울릉도에서 보낸 것은 무엇보다도 ‘택일’의 절묘함이 아닐까. 바이칼, 미안마, 쿠바 등지를 곱샘(김효문)과 함께 답사여행을 하면 서도 늘 기억되는 것은 날씨가 가장 큰 부조였던 것이다.

울릉도행 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박5일 동안 울릉도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기도 했으나 답사여행 내내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지냈음을 고맙게 여긴다. 특이한 것은 샘들의 감탄사가 거의 영어 ‘WOW!’를 사용하더라는 것. 아마도 우리말로 하면 ‘우와!’ 일텐데….

울릉도에는 많은 것이 다섯 가지(물, 미인, 바람, 돌, 향나무)이고, 없는 것이 세 가지(도둑, 공해, 뱀)라고 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섬에 물이 풍부한 것이었고, 더군다나 용출수(湧出水)였다. 가이드 왈 ‘물을 흥청망청 쓴다’고, 삼무 중에 ‘사(蛇 뱀)가 없는 이유는 석향목의 향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교회가 마흔 한 곳이라 덧붙였다. 순간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다른 류의 사(師, 事)가 많겠구나’였다.

답사여행지 중 특히 기억되는 곳은 나리분지(에서 점심과 씨겍데기 막걸리 한잔 걸친 후 생태숲길을 걸어서 용출수를 마시고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눈 일), (375 계단을 올라 죽도를 바라보던) 관음도, 봉래폭포(를 보고 내려오던 길에 들른) 얼음굴(에서의 서늘함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등이다.

답사여행이든 관광여행이든 하루의 공식 일정이 끝난 후 갖게 되는 뒤풀이 또한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도동항여객터미널 앞 다리

위 가로등 불빛 아래, 정을 담아 기울이던 술잔들, 주고받던 담소들,  
미소들, 폭소들, 격려들. 그리고 23시 10분에 소등이 되고, 휴대폰  
불빛위에 소주병을 얹어 밝히던 밤, 0시 50분에 자리를 말끔히 정리  
하고 호텔로 귀가!

울릉도는 나에게 내 고향 건지리!  
건강하게, 지혜롭게, 리얼하게  
박수치며 사는 세상  
함께 만드는 꿈을 꾸게 하는 곳!  
늘 그리운 곳!



## 미완의 길 770m

박윤옥 / 간동고등학교



걷기는 언제나 내게 활력을 준다. 걷기 전의 설레임, 걸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 시야에 들어오는 작은 풍경들, 모두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이다. 거기에 예기치 못한 일탈과 함께할 동지가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울릉도 걷기 여행은 내게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되어 주었다. 독도전망대, 행남해안생태길, 나리분지, 태하감, 봉래폭포, 내수전전망대 어느 길을 떠올려도 특별하지 않은 길은 없다. 그런 가운데 미완으로 끝낸 길이 있어, 이 글로 나머지를 채워 보고자 한다.

미완의 길, 물론 당시에는 미완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걸은 것은 울릉도 여행 첫날이다. 첫날의 일정은 오후 도동항에서 시작되었다. 독도박물관 관람, 그리고 케이블카로 독도전망대에 올라 도동항 전체를 조망하고 멀리 독도를 가늠해 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물관에 오르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 케이블카는 당분간 운행이 어렵다 한다. 코로나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다니. 어쩔 수 없이 일행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도동항으로 내려 가게 되었다.

그때, 걷기 좋아하는 나를 비롯한 세 여인의 눈에 들어온 건물이 있었다. 그것은 케이블카 하차장. 푹푹 찌는 더위지만 그 건물은 유난히도 정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누가 먼저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느덧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곳을 걸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갈 수 있을 거야. 왜? 케이블카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갔었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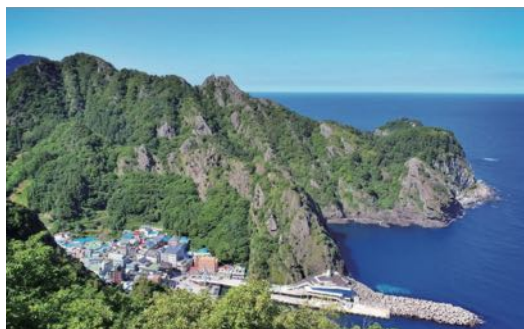
우리의 추리와 분석은 정확하였다. 향나무 가게 총각, 즉 현지인의 말에 따르면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오르면 케이블카 하차장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이런 황재가 있나? 우리는 뭘 뜻이 기뻐 총각이 가르쳐준 대로 뛰다시피 길을 올랐다. 약수공원을 지나 산길로 접어드니 길 안내 표지판까지 우리를 반기는 것이 아닌가. 길 안내 표지판을 자랑스럽게 찍어 일행에게 보내고 남겨진 1200m를 향해 전진하였다. 이어지는 길은 인적 드문 숲길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우리의 행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울릉도에는 뱀이 없다는 현지인들의 말을 굳게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뜻밖에 산길은 짧았고 차가 다닐 법한 큰길을 만났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그 건물. 아! 드디어 케이블카 하차장에 도착하였다. 아, 이때 호기심이 발동하여 조금 더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 갔다면, 그 너머 독도전망대 시설이 보였을 텐데. 하산길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올랐던 봉우리 이름



케이블카 하차장과 전망대 오르는 계단

에 대하여 묻고 또 물었다. 집에 돌아가 검색해서 봉우리 이름도 알고 소감도 쓰겠다고 내뱉은 말이 기억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케이블카 하차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울릉도 기상대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걸은 것일까? 인터넷 길 찾기로 검색하니 약수공원에서 독도전망대까지는 3.1km, 걸어서 46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가 걸은 곳은 약수공원에서 울릉도 기상대까지. 울릉도 기상대에서 독도전망대까지 770m에 11분 소요되니, 딱 그만큼 우리는 걷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걸은 길은 미완의 길이었던 것. 이쯤에서 향나무 가게 총각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총각! 정상적으로 걸어도 46분 걸리는 길인데 어찌자고 20분이 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뽕 치지 말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울릉도 기상대, 그곳을 의심할 만한 요소들은 많았다. 케이블카 하차장 옆에 왜 기상대가 있지? 그리고 조망이 좋은 곳이라는데 왜 바다 풍경이 이렇게 밋밋하지? 저 건물에 연결된 전깃줄이 케이블카가 다니기에 충분한가?...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기에는 당시 우리의 일탈은 짜릿함과 차원이 다른 뭐랄까.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다. 마치 탐험가로서 성취한 기쁨 같은 것이



독도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동항

였다. 그리고 하산길에 얻은 소소한 재미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지 않았는가. 자동차정비소에서 얻어 마신 꿀맛 같은 냉수, 이글거리는 지열을 피할 길 없어 발을 동동거리던 일, 버스정류장 건너편 해군부대에서 우리를 감시하던 김정 마스크의 해병 세 명, 30여 분을 기다려 탄 시내버스의 뱅뱅한 에어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낮가림을 털어버렸다는 것. 그후 저녁과 이어지는 이틀간의 여행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최근에 이보다 더 좋은 단체 여행은 없지 않았는가?. 단지 가지 못한 길의 풍경이 궁금할 뿐. 미완의 길 770m의 풍경을 인터넷 사진으로 대신하며 다음날을 기약해 본다.



## 자랑스러운 우리 국토, 울릉도!

박현자 / 대룡중학교

●●●  
 근래에 수업시간 틈틈이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시간에는 ‘독도를 넘보지 마라’라는 EBS 수업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며 조만간에 울릉도(독도)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운이 좋았는지 울릉도 여행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와 무조건 신청을 했다. 일정에 독도는 없었지만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니 독도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흡족한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강릉항에 들어섰을 때 다른 관광지와 다르게 관광기념품을 파는 곳에 태극기가 그려진 스카프 상품이 많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굳이 스카프에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을까? 저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쓰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배에 올랐다. 3시간 넘게 망망대해를 배로 가면서 울릉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실감하였다.

울릉도항에 도착해 보니 항구 여기저기에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동해바다에서 외롭게 우리 국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울릉도가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웬지 가슴이 뭉클하였다. ‘울릉도가 독도 수호의 전진기지로서, 울릉도(독도)가 대한민국 국토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곳곳에 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트가 넘치는 가이드의 말이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망언을 할 때마다 울릉도에 대한민국 방문객이 넘친다고 하였는데 울릉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섬이었다. 펄럭이는 태극기는 울릉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

다. 삼천리 금수강산! 천혜의 비경을 가진 울릉도가 우리 국토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내 잠재의식 속의 국토사랑을 일깨워 준 특별한 여행이었다. 다음에는 독도를 만나러 다시 울릉도를 찾을 것을 기약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시간의 점, 행남등대 가는 길

한명숙 / 봄내중학교

● ● ●  
우리의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이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때는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며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

-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간의 점>

오래 전, 시인은 알프스를 여행하며 가슴에 파고들어 힘을 주는 자연 속의 한 장면을 ‘시간의 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장면과 경험은 평생 지속되어 우리의 삶에 ‘시간의 점’이 된다고 했다.

2020년 여름, 울릉도 역사문화답사길이 그랬다. 2박 3일 동안 짧은 일정의 한계로 스쳐가야 했던 풍경들이었지만, 살다보면 언젠가 불현듯 선물 같은 풍경들이 떠올라 나를 흔들어 일으켜 세우리라. 1년 중 40여 일만 맑은 날이라는 울릉도, 긴 장마와 물난리가 지나고 모처럼 빛나는 투명한 햇살과 공기, 바람결도 새삼 소중했다. 많이 걷고 많이 땀 흘리며 문득 고개 들어 맞이한 풍경이었기에 더욱 소중했다. 발길 닿는 곳곳이 빼어난 지질 경관을 보여주었지만, 해식애의 보고인 행남해안산책로는 남달랐다. 첫 날 오후 햇살에 본 경치를, 마지막 날 새벽에 다시 한 번 마음에 담을 수 있었다. 행남등대에서 일출을 보겠다는 방짜를 따라, 아니 그녀의 수호천사 역할을 다짐하며 기꺼이 동행한 덕분이었다.

새벽바다가 열어준 호젓한 바닷길에서 기묘한 해식애보다 해를 품

은 동해의 바람과 해무가 온몸에 와 닿았던 특별한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우람한 곰솔 숲과 털머위의 싱그러운 잎들이 군락을 이룬 행남등대 가는 길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 곁에 피어나 아침이슬 머금은 씩씩한 호박넝쿨 샛노란 꽃들은 오랜 기억을 소환해 내기도 했다.

행남마을 입구엔 이제 살구나무는 간 데 없고 이름도 정겨운 ‘철수네 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어느덧 중년의 고단함이 깃든 철수 엄마가 잠이 묻은 눈꺼풀로 가게문을 열던 집, 이제 귀한 아들은 고향을 떠났지만 이 길을 지나는 이들이 ‘철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자식의 안녕을 비는 어미의 마음이 바람결에 전해지겠지…. 행남산책로를 돌아나오며 철수네 상호에 빗대어 이번 답사길에 함께한 도반들, 그리고 내 그리운 이름들을 가만히 읊조려 보았다.

안녕, 안녕, 나의 소중한 사람들아!



## 울릉팔경을 보고 싶은 꿈

이보영 / 화천중학교



가까운 듯 먼 길이었다. 태풍, 폭설, 바람이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들 했다. 더구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길고 강력한 장마가 끝을 알 수 없게 지속되고 있었다. ‘가능할까? 울릉도는 그 꿈을 열어 우리를 허락할까?’ 떠나기 전날 밤 가방을 꾸리면서도 하늘을 확인하며 내내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듯 눈부시게 파란 하늘, 잔잔한 바다, 풍성한 뭉게구름, 그리고 진초록빛의 울릉도가 우리를 맞았다.

화산지형과 해안지형이 뒤섞여 오묘하게 빚어놓은 해안길에서 느낀 신비로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지켜온 울릉도민의 피땀의 흔적을 목격한 독도박물관에서의 먹먹함,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두 발로 걸으며 이 지상에서의 고민이 한낱 먼지와 같다고 느껴지던 관음도 가는 길에서의 벅참, 혹독한 바닷바람과 태양을 온몸으로 맞으며 뒤틀리고 꼬부라졌지만 단단한 등치를 이룬 내수전망대 길 동백나무숲에서 느낀 감동,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슬기롭게 꾸려온 울릉도민의 삶이 배어 있는 투막집, 산비탈 밭의 작물들, 각종 먹거리들을 보며 느낀 가슴 찡함 등 2박 3일의 일정 동안 한 순간도 비지 않는 짙은 감정들이 가슴을 메웠다.

하여 나는 울릉도의 봄을,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냈다는 울릉팔경을 보고 싶다는 꿈을 새로이 품는다. 끝없이 궁금해지는 울릉도의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내내 듣고 또 보고 싶다.

# 매력의 섬, 울릉도

이운옥 / 봄내중학교



울릉도에 언젠가는 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얼른 신청하고 나서 갈등이 생겼다. 원래부터 물을 무서워하는 데다 뱃멀미 걱정과 함께 무엇보다도 보관 이사를 앞두고 있어 짐 정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심란해졌다.

울릉도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 곳은 독도전망대였는데 위의 사진은 바다 사막화로 인해 독도 해조류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해양생물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심화된 지역들인데 앞으로 점차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울릉도에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물과 전력이다. 화산으로 형성된 산허리에 있는 높이 270m의 바위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용출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 용출구로부터 나온 물은 수로를 통하여 제2발전소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방류된 물과 인근 소계곡에서 모인 물을 제2발전소의 저수조에 저장하였다가 수로를 거쳐 제1발전소에서 발전에 이용하고 바다로 방류된다. 2개 발전소 4개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6.6kV 배전선로를 통하여 울릉도 저동에 위치한 내연발전소와 함께 울릉도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울릉도는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매력적인 곳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색깔을 같이 보고 싶다. 가족과도 다시 가보고 싶고, 오랫동안 책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도, 그리고 지인들과도 함께 방문해야겠다. 다음에 갈 때 관음도는 나 빼고 그들만 가는 길로(?).



## 마가목, 울릉도다!

정순애 / 가산초등학교

●●●

나리분지를 걸어 내려오면서 본 마가목 나무  
울릉도 곳곳을 걷다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나무  
봄에는 하얀 싹강냉이 같은 탐스러운 꽃을 선물하고  
여름에는 노란 연두빛 둥근 열매를 보여 주다  
가을이 되면 우리의 건강에 좋은 탐스러운 빨간 약재를 선물한다.  
울릉도의 자연환경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가목 나무가 생각난다.



말이빨처럼 힘차게 돌아나는  
새순을 보고서는  
마아목(馬牙木)이라 하였던가

눈부시게 하얀 송이송이 꽃들은  
꿀단지를 품고  
중매쟁이인 벌과 나비를 부르네

사랑의 결실이 맺어준  
수많은 옥동자는  
계절마다 다양한 옷을 갈아 입고선  
앞선 감각을 자랑하듯  
화려한 패션쇼를 연출한다네

시간의 추이속에  
이제 그만  
뜨거움은 지나가고  
찬바람 불라말라 하니

앞은 붉은 노을 같은  
때론 황금빛  
단풍으로 스스로를 태우고

기관지염과 관절염에 좋다는  
귀한 열매를 남겨주니  
우리는 그대를 마가목이라 부른다.

- 남구연의 <마가목>

## 동백꽃 필 때 다시 오기를

주민주 / 우석중학교



금요일 방학을 하고 바로 울릉도 여행길에 올랐다. 비록 아이들이 개학을 해 나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모든 걸 남편에게 맡겨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다. 내가 울릉도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말과 시선을 느끼며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었다.

강릉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만에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했다. 오는 내내 바다는 너무도 잔잔했고 날씨는 화창했다. 따개비밥으로 점심을 먹고 독도박물관에 갔다. 독도박물관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독도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교육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1960년대 말 울릉도에 살면서 찍었다는 미국인 험프리 헨지의 영화 <Out there a lone island>는 당시 울릉도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독도박물관에서 내려온 후 해안생태길로 방향을 돌렸다. 도동항에서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해안산책로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침식해안과 그 사이를 흐르는 푸른 바닷물, 용암이 깨어져 생긴 작은 조각인 클링커로 이루어진 암벽, 붉은빛의 이그넬브라이트 퇴적층이 만들어낸 해안절벽은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둘째 날 버스를 타고 일주도로를 따라 울릉도를 한 바퀴 돌았다. 버스 기사님의 울릉도에 대한 설명에서 울릉도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재치있는 입담에 많이 웃을 수 있었다. 차 안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너무도 잔잔했고 바다 빛깔은 에메랄드처럼 맑고 푸르렀다. 특히 모노레일을 타고 대포곶에서 바라다본 바다 빛깔과 몽돌 해변에서 관음도로 향하는 도중 본 삼선암과 판암은 푸른 바다빛과 어우러져 뭐

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몽돌해안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쉼 후 관음도로 향했다. 7층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관음도에 쉽게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오후 햇볕은 내리쬘고 계단은 계속 나타났다. 그나마 중간 중간에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 한 번씩 쉴 수 있었다. 관음도에서 바라보는 죽도도 멋있었다. 특히 구름에 서서히 가려져 자취를 감추는 모습은 신비 그 자체였다. 울릉도의 일주도로와 해안길을 거닐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나만 본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울릉도에 같이 오고 싶다. 동백꽃이 피는 계절에 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울릉도는 쉽게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음에도 이번처럼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겠지.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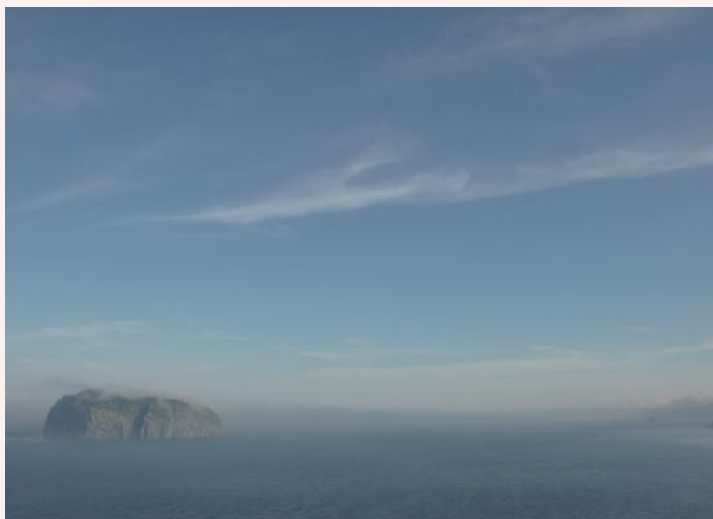


동아시아 바닷길을 향해~



시원한 자연과 환경, 생태를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진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보고 있자니, 자연스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바다와 바다를 잇는 길, 섬과 섬을 잇는 길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함께 걸어보자!







# 함백산과 만항재, 그리고 사람들

- 2021. 7. 26. 정선태백 인문기행을 마치고

정연실 / 홍천 양덕중학교

‘대지에 두 발을 딛고 살아온

건강한 몸과

쉽게 좌절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이에게는

푸른 기운이 흘러나온다.’

-《걷는 독서》 302쪽

기후 위기로 점점 독해지는 더위로 힘들었던 2021년 7월 26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함백산을 올랐다. 설악산 다음으로 높은 함백산이라는데 석탄을 나르던 산업용도로인 ‘운탄고도’가 잘 닦여 있어서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이라 오르는 동안 더운 여름을 몸으로 실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화창한 날씨로 정상에 올라 바라본 경치는 사방이 환하고 하늘과 산과 사람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 평화 그 자체였다.

함백산을 내려와 만항재를 둘러보았는데, 푸른 숲속에서 피고 지는 꽃들을 구경하며 책 한 권을 펴들고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낭송하는 시간, 진짜 ‘걷는 독서의 힘!’을 느꼈다. 만항재에서의 시간은 간식으로 먹었던 복숭아처럼 ‘무릉도원’ 그 자체였다.













# 인문교육공동체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을 소개합니다!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 《걷는 독서》, 박노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같이 걸으며 책에서 읽은 구절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들을 같이 걷는 이와 공유하며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은 지역에 기반하여 강원 교육의 미래에 대해 교사 스스로가 생각하고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강원도의 옛길을 걸으며 그 길에 담긴 강원역사와 문화, 일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 〈강원교사인문학여행〉 운영 일정

No.	일자	장소	내용	사회 및 강연
1차	9. 25.(토)	강릉	〈대관령 옛길에서 시작하는 강원도 문학기행〉 - 대관령 옛길~안반데기길~모정탐길 - 옛길의 일상생활과 문화탐방 -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특강	한명숙 (봄내중)
2차	10. 10.(일)	양구	〈DMZ 옛길에서 이어지는 동아시아 평화기행〉 - 편지볼돌레길~한계리~백담사 수렴동길 - 자연생태환경 탐색 - 주제도서 함께 읽기	김효문 (강원교육연구소)
3차	10. 23.(토)	인제	〈2021 가을, 자작나무숲에서 평화와 생명을 노래하다〉 - 인제 자작나무숲길 - 생태문화 탐방 - 시인 초청강연, 시낭송북콘서트	한영수 (시인)

## 2021년 인문교육공동체 〈강원교사인문학여행〉

2021. 9. 25.(토)

대관령 옛길에서 시작하는 강원도 문학기행



2021. 10. 10.(일)

DMZ 옛길에서 이어지는 동아시아 평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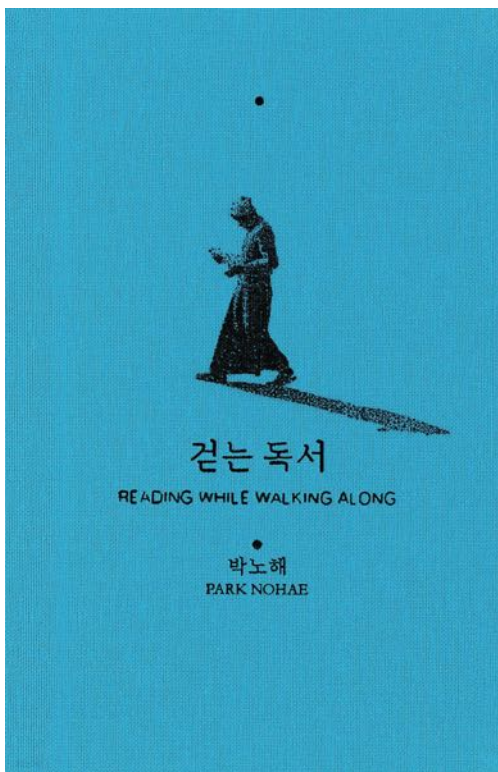


2021. 10. 23(토)

2021년 가을, 자작나무숲에서 평화와 생명을 노래하다







손길을 내미는 책과 천천히  
마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 《걷는 독서》 중에서

걷는다는 것을 무엇이길래 박노해 시인은  
독서 앞에 걷는다는 말을 붙였을까요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길래 먼 옛날 누군가는  
마음에게 천천히 걸으라 말했을까요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걷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 걷는다면  
정말 소중한 추억이겠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으며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를 때는 앞선 이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묵묵히 내 뒤를 지켜주는 이를 보며 힘을 냅니다.

《걷는 독서》를 읽고 있으면 왠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를 때,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힘이 들 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듦, 슬픔, 고단함, 외로움은  
모두 누군가 같이 느끼고 있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으니 그러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너무 멀리 있어 당신이 미처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앞에서 혹은 뒤에서 묵묵히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가자며  
나와 함께 걷자고 따뜻한 응원의 손길을 내미는 책입니다.

강원교사인문학여행

4

PART

---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강릉 옛길







## 노추산 모정탑길을 걸으며

김선희 / 홍천여자중학교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26년간 홀로 돌탑 3,000개를 쌓은 차순옥 여사의 모정탑길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젖어 걸으며 84세 나의 노모를 생각했다.

스물 어린 나이에 시집와 4남매 키우시며 마음속에 돌탑을 3,000개도 더 쌓았으리라.

“엄마는 자식 넷을 어떻게 키웠어? 둘도 힘든데…”

나 또한 엄마 되어 남매를 낳아 키우다 보니 마음속에 돌탑을 쌓게 됩니다.

나의 아들이,

9월 25일, 너의 생일을 축하해. 아들의 앞날에 좋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사랑해~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

처음 해보는 아이 노릇,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만나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채워주며

언젠가 이별이 오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한 생을 동행하기를.

-《걷는 독서》





# 길에서 배우는 느린 삶

김현숙 / 소양중학교



궁금했다.

누가 그 바람 많은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를 키우기 시작했을까?  
안반데기는 초기 화전민들의 바램이었고, 그들이 길을 낸 것이었다.  
삶과 영혼, 그리고 긴 염원을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을 가공 없이 사용  
하여, 자연에 그대로 녹아나게 한 위대한 예술가- 차순옥 여사께 모  
정탑이 대신 써주고 싶었습니다.  
보슬비 오고, 안개 낀 대관령 옛길을 걸으면서 고단함과 느린 삶의 관  
계에 대해 잠시 생각이 머물렀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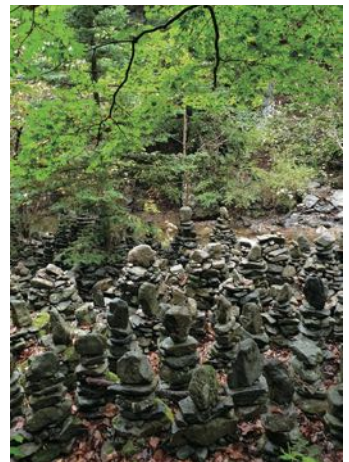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므로

-《걷는 독서》





# 걸음

김효문 / 강원교육연구소



힘이 들어가야 힘이 나온다.  
내가 내딛는 걸음이 역사다.

신발은 구속이 되기도 한다.  
가끔은 맨발로 걸어 가보자.

해방감



목적지는 저 먼 어딘가가 아니다.  
그곳에 이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이다.

-《걷는 독서》425쪽



# 대관령 옛길, 안반데기, 노추산 모정탑길에서

라상숙 / 중앙초등학교



안개인 듯 비인 듯 초가을 습기를 머금은 대관령 옛길을 걸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들이길이라 발걸음도 가볍고 공기도 상쾌했다. 하지만 그 옛날 이 길을 오르내리던 누군가는 발길마다 그리움의 흔적을 남겼고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기원했을 것이다.

국사당에서는 무녀들이 신령한 기운을 받기 위해 그들의 의식을 하고 있었다. 이 또한 누군가의 안녕을 기원함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번 독서여행에서 간절함으로 완성한 사랑을 보았다.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보태 만든 돌탑,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산속에 길을 내고 탑을 쌓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랑이 감싸여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 함께한 모든 분에게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이 가을을 사랑하고 있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사랑에 감싸여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걷는 독서》358쪽





## 독보(獨步), 독보(讀步), 독서(讀書)

박명희 / 성수고등학교



2학기에 들어 수업 시간, 학생들과 이순원 작가의 《말을 찾아서》를 읽고 ‘모방적 패러디’로 창조적 재구성을 하는 활동을 했다. 작품 속 배경인 대관령 옛길을 걷다 보니 ‘반정’이 나왔다. 작품에서 중학생인 ‘나’는 노새를 끄는 당숙 집에 양자로 가게 되고, 당숙을 찾으러 간 봉평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길인 ‘대관령 옛길’을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마침내 당숙과의 갈등은 해소된다.

다음 날 아침부터 걸은 길도 그랬다. 풀인 여물을 가마니에 받아 싣고 노새가 맥을 못 추는 한낮만 잠시 그늘에 피했다가 저녁 늦게야 대관령에 닿았다.

“그라이자. 우리 만상주 시키는 대로. 영 내려가다 중간 반정(半程) 집에 가서 뭐 좀 달래서 먹구.”

-《말을 찾아서》, 이순원

저물녘 걷는 길 위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큰 가마솥에 끓이는 여물내, 그 곁 작은 가마솥에 짓는 구수한 밥내가 어디에서든 나를 따른다. 지금 반정은 주막은 없이 그 터만이 남아 우리를 맞아 준다. 사재를 내어 대관령 중턱에 주막을 설치해 대관령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했다는 강릉부의 향리 기관(記官) ‘이병화’님 이야기가 안개와 함께 나지막이 펼쳐진다.

길을 읽으며 옛길을 걷는다. 소설 속 ‘나’와 아부제가 걸었던 길, 강릉부의 향리 기관(記官)도 걸었을 길, 선비도, 장돌뱅이도, 신사임당도,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울곡도 걸었을 길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걷는다. 동행이 있어도 홀로  
걸을 수밖에 없는 좁은 산길 위에 발을 포개며 이 길을 걸었을 수많은  
옛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길에 놓아두고 간 ‘옛사람들의 마음’도 읽  
는다.

인용의 인용의 인용을 하며 이 길을 걷고 또 걸었을 옛사람들의 상념  
의 숲을 지금은 내가 걷다가 읽다가 또 걷는다.







# 는개비 내리는 대관령을 걸으며

박혜진 / 유봉여자고등학교

가을에 걷는 대관령 옛길, 안반데기길, 노추산 모정탑이라니!  
이건 완전 '가을의 전설'이야!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들이라 일정을 보는 순간 바로 손을 들었다. 그런데 파란 하늘과 청명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인문학여행을 기대했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침부터 하늘은 흐렸다. '에효, 조금 아쉽다.' 속으로만 조그맣게 말해 보았다.

그러나 는개비에 촉촉해진 대관령 옛길을 걸으니, 오히려 그 길 속에 울곡의 손을 잡고 친정을 향하던 사임당의 모습이, 송강 정철이 시 한 수를 읊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김홍도가 능선에 걸터앉아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이 몽환적으로 피어올랐다. 는개비 따라 어느새 교사인문학여행의 감성도 한층 촉촉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노추산 모정탑.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어머니는 하나 하나 매일 같이 돌탑을 쌓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그 돌탑이 엄청나다고만 생각했는데, 돌탑길을 돌아 돌아 가며 마음 한 켠에 섬뜩함까지 느껴졌다. 26년간 쌓았다니, 나이 많은 어른의 고집도 아니고 40대부터 쌓았다니, 100여 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라니... 마치 전설이 내 눈 앞에서 탑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그렇게 전설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苦)는 노추산에 모정이라는 전설을 탄생(生)시킨 것이다.



고생, 고(苦)는 생(生)이다.

고통 속에 무언가 탄생하고 있다.

-《검는 독서》



## 산과 강과 구름 위를 걸으며

서보국 / 봄내중학교

아침 7시, 버스에 몸을 기대어 도착한 옛 대관령휴게소에서 시작된 바우길 1구간(선자령풍차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소나무와 잣나무, 밤나무 등이 길옆까지 달려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마치 내가 마라톤 선수인 양 어깨가 우쭐거렸다.

매년 음력 4월 15일,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를 모시는 국사 성황사와 김유신을 모시는 산신당을 거쳐 대관령 옛길을 내려왔다. ‘나중에 집사람과 함께 와야지!’라고 한 약속을 15년 만에 지킨 숲은 그때의 원시림처럼 잘 보존되어 있었다. 굽이굽이 숲길과 나무 사이에 흐르는 안개가 어우러진 경관에 저절로 저속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하였다. 특히 소나무와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대나무가 아직까지 사이좋게 살고 있는 모습에 덩달아 발걸음이 가벼웠다.

대관령 능선을 따라 펼쳐진 안반데기 고령지 채소밭은 안개로 다 보지 못한 아쉬움에 대형 풍차를 휘휘 돌리며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던 중 피어있는 들국화 군락지를 보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 집안에 우환의 끈을 끊기 위해 울곡 구도장원비가 있는 노추산 계곡에 마흔 살의 젊은 나이에 26년간 3,000개의 돌탑인 모정탑에 감탄 소리보다 숙연한 숨소리가 계곡을 메웠고, 끝내 하늘도 그 곡소리에 답하는 듯하였다. 좁은 움막에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가정의 안녕을 바라며, 온몸에서 흐른 땀방울로 쏜 풀을 돌에 발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차순옥 여사의 돌탑을 보며 ‘지금 이 시각에도 나와 얹혀 있는 인연들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태양을 가리는 데는  
지구를 덮을 만큼의 장막이 필요치  
않다.  
눈동자를 가릴 손바닥이면  
충분하다.

-《걷는 독서》

‘걷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내면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고, 답답했던 가슴 속을 나무와 꽃의 향으로 채우게 되었고, 창밖의 세상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어 뜻깊은 답사가 되었다.



#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좋다!

신영숙 / 만천초등학교

●●●

가을가을한 날에,  
처음 가보는 대관령 옛길이다. 가슴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  
차게 두 발로 걷는다. (걷는 독서가 아닌 뛰는 독서 같은 이 기분은 뭐  
지? ㅎㅎ~)

차 안에서 샘 한 분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

‘행복은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해서 행복하다.

비 오는 숲길을 따라 걸으며.... 초록초록 숲이 좋다. 정말 좋다. 숲이  
있어 참 좋다.

숲과 하나 되어 걷는 이 길 또한 내가 사는 힘이 되어 준다.

함께한 좋으신 샘들, 더 힘이 되어 주신다. (으랏차차!)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넘 고마운 날이다.

가을이 익어가는 날에 또 가고 싶다.

첩첩산골의 흙을 경기까지 실어 나르다니 대단한 역사였다.

아마 달이 언젠가 양구로 떨어진 적이 있었던 것이다

백자가 나에게 쉼표처럼 다가왔다.

-〈하얀 쉼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  
이 지국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내가 사는 힘이 되는 그런 이가  
있다.

-《걷는 독서》





# 아침 대관령 옛길에서

심금순 / 서상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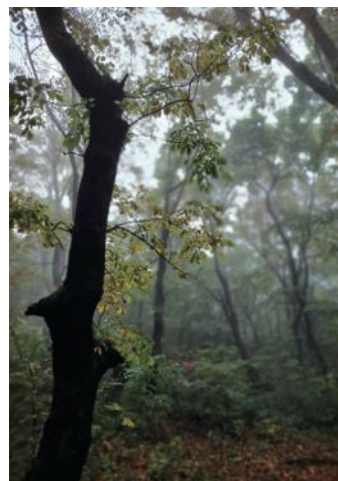


대관령 옛길을 건노라니 박노해 시인의 시가 와 닿았다.

‘건강하려면 걸어라.’

요즘 학교 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몸이 참 바쁘다. 바쁘다고 나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신은 건강 비결로 걷는 행위를 하라고 하셨나 보다.

대관령 옛길은 양떼목장 덕분에 몇 번을 가서 낫설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르는 코스로 돌면서 초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산책하듯이 걸으니 기분이 좋았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답답했던 마음이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산뜻해졌다. 그리고 부슬 부슬 가을비에 안개까지 있으니 신비한 숲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단오제의 시작점이 되는 산신각과 성황당에서의 느낌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사부작 사부작 좋은 벗님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걷는 길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박노해 시인의 <발바닥과 대지에 반쪽씩> 시처럼 나는 더 건강해졌다. 몸도 마음도. 이 힘으로 남은 2학기를 잘 보내야겠다.



신은 건강의 비결을  
발바닥과 대지에 반쪽씩  
써넣었으니,  
그들이 입맞출할 때 강녕하리라.  
-《걷는 독서》



# 좋은 삶을 만드는 길 걷기

안동화 / 강원교육연구소



늘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여기, 걷는 독서 답사에 참가해 하루를 동행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노력과 행동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새삼 이 나이에 뭘 또? 아니다. 늘 바꾸고, 배우고, 행동하는 것만이 나를 온전하게 좋은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것 같다.

다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오래오래 해나가면 그렇게  
되어간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걷는 독서》



# 걷는 독서

유상열 / 강원교육연구소



안개비로 녹진한 대관령 옛길을 걸었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길.  
열게 질게 숲에 길에 내려앉은 안개는  
시선이 발길에 머무르게 안내한다.

이 길은 언제부터 길이 되었을까?  
길을 잃은 이들이 이 길을 열었을까?  
무슨 염원으로 외지고 먼 이 길을 열어갔을까?

혹 그때도 안개 중이었을까?  
열다섯 나이에 혼인길로 이 길을  
지났을 허초희(난설헌)가 가깝게  
다가왔다.

“등에 진 짐이 무거울수록  
깊은 발자국이 새겨진다.”

-《걷는 독서》

산간 황무지에 안치되어 새 땅 새 산골짜기 마을을 열어간 안반데기  
선주민. ‘3,000개의 돌꽃’을 피우신 차순옥 어르신 마음 길을 슬쩍  
밟아본다.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 496쪽



## 간절함이 이 길로

정연실 / 홍천 양덕중학교



대관령 바우길, 국사성황당, 안반데기길, 모정탑길로 만물이 익어가  
는 가을 하루를 걸었다. 날씨는 지난 여름과 다르게 안개와 내리는 이  
슬비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길이란 걷는 자의 것’이라 ‘제 속도로 깊  
이깊이’ 익어가는 답사길이 되었다.

대관령길은 여러 번 걸었는데 내리는 비 때문이었을까? 국사당이 인  
상 깊었다. 성황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까마귀 소리, 가까이 있던 산  
비둘기, 샘 근처에 있던 제를 지내고 버려진 음식들에 뭔가 강한 기운  
이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시작되고 깃든 곳이란 생각이 들  
었다. 안반데기 길에 이미 수확되고 버려진 배추들 역시 이 가파르고  
높은 곳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모  
정탑길은 지난 여름의 정암사 수마노탑과 함께 떠오르며 사람들의  
간절함이 길로, 밭으로, 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돌 같은 믿음.  
돌 같은 침묵.  
돌 같은 정진.  
돌에서 꽃이 핀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 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혼자서는 갈 수 없다.  
웃으며 가는 길이라도.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눈물로 가는 길이라도.

-《걷는 독서》694쪽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 속도로, 깊이깊이.

-《걷는 독서》474쪽



# 노추산 모정탑길을 걷고

주민주 / 우석중학교



걷는 독서 연수를 통해 대관령 옛길, 와우 안반데기, 노추산 모정탑길 등을 걸으며 고단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느꼈다. 가파른 산을 깎아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해질 무렵 돌아와 식구들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고단했던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몸을 눕힐 때면 아마도 힘겨운 그녀들의 삶에 눈물짓지 않았을까 싶다. 집안의 안녕과 자식들이 잘되길 기원하며 26년간 홀로 삼천 개의 돌탑을 쌓은 차순옥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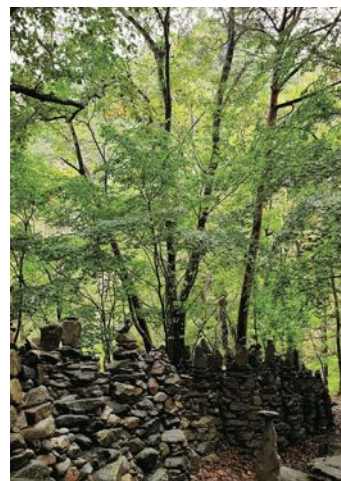
개울가 차순옥 어머니가 머물렀다는 움막집은 너무도 작아 가슴이 아팠다. 그 작은 몸으로 개울가 돌을 날라다 가정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며 차곡차곡 돌을 정성스레 쌓았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처음엔 꿈속에 나타났다는 산신령이 원망스럽고, 꿈속의 계시를 순진하게 믿은 어머니가 답답했지만 아마도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기에 그 꿈에 의지하며 묵묵히 26년간 돌탑을 쌓지 않았을까 싶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과 삶이 그러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아, 고왔던 여인이여  
고단한 뒷모습의 내 어머니여,  
수줍던 그 여인이여.

-《걷는 독서》





## 강릉 일대를 다녀와서

최경화 / 소양중학교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26년간 돌탑을 쌓았다는 차순옥 여사의 이야기와 산신령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관령이 전국에서 가장 산의 기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듣고 왜 동양 문화권에 서 중요시 여기는 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관령 옛길을 걸으면서 자동차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고개를 넘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상상해 보았고 안반데기에서는 커다란 땅덩어리의 장엄함과 동시에 가운데 자리잡은 아기자기한 작은 마을에서 고즈넉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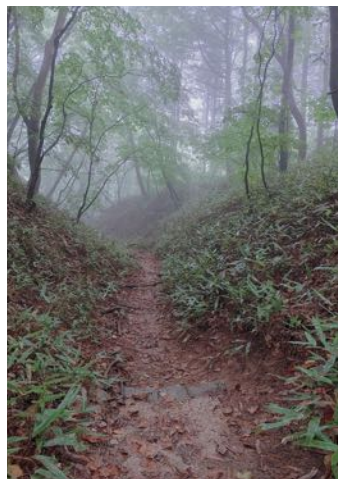


# 애환이 굽이굽이 나가는 길

최박희 / 소양중학교



답사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코스가 대관령 옛길 걷기였다. 대관령 양떼목장은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대관령 옛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였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다녔을까? 옛날 강릉 지역에는 ‘평생 대관령을 한 번 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전한다. 1989년, 난 처음으로 강원도 대관령을 버스를 타고 지나갔었다. 어찌나 길이 험하던지 굽이굽이 돌 때마다 차멀미로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다니지 않는 길이어서 이번 답사가 더욱 기대되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다.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와 안개에 휩싸인 숲,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옛날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걸어간 길, 국사성황당은 강릉단오제 시발지로서 백두대간의 뿌리라는 한명숙 샘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유서 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늙으신 어머니는 임영(강릉)에 계시는데  
이 몸 혼자 서울로 떠나는 마음  
머리를 북촌으로 돌려 때때로 바라보니  
흰 구름 떠가는 아래 저녀 산만 푸르구나

- 신사임당의 〈대관령을 넘으며〉

학창 시절 이 시를 읽으며 친정어머니를 홀로 두고 서울로 떠나는 애환이 절로 느껴질 만큼 애절했다. 대관령 옛길을 걸으며 문득 이 시가 떠올랐다.



# 대관령 옛길을 걷다

최주미 / 양구중학교



9월 25일 걷는 독서의 시간, 반가운 옛 동료들과, 연수 때마다 만나는 좋은 선생님들과의 산행이 시작된다. 오전은 국사성황사에서 대관령 옛길 표지석이 있는 반정까지 걷는다.

대관령 옛길은 고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로였다고 한다.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 가는 선비들이 걸었고, 보부상들이 봇짐 지고 걷던 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그림이 깃든 길이라 한다.

단오 명절 행사가 시작되는 곳, 국사성황사에 도착했다. 전국의 무속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영험한 곳이라 한다. 이날도 굿을 준비하는 무속인들이 보였다. 비둘기가 산신각 위를 날고 있고, 산신각 위 샘터 부근에는 흰색의 투구꽃이 피어 있다. 5년 전 이곳에서 보았던 순백색의 함박꽃이 생각났다. 천년의 단오제가 이어져 온 곳이어서일까? 이곳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게 느껴진다.

성황사를 뒤로하고 비탈길을 오르고 양떼목장을 지나서 숲길을 조금 걸었다. 곧 임도가 나왔고 반정으로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었다. 반정은 대관령을 오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주막이 있던 곳으로 대관령 초입에 있는 구산역과 대관령 위에 있는 횡계역의 중간이란 뜻이다. 유서 깊은 길이어서일까? 운무에 감싸인 단풍나무 고목들의 신비로움 때문일까? 반정을 향해 내려가는 숲은 평화롭고 행복하다. 기분 좋다. 숲을 걷다 보면 어느새 시름을 잊게 되고 위안과 평화가 찾아온다.

9시 30분 대관령 휴게소에서 시작한 길은 11시 20분경 반정에 도착했다. 버스에 올라 점심을 먹기 위해 성산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듣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 빛에 둘러싸이라.

-《걷는 독서》

는 범일국사의 설화, 강릉 지역의 절터 해설로 길은 더 풍요롭다. 역사가 깃든 대관령 옛길의 풍류, 산길을 앞질러 도착해 동행자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사진 찍어주는 도반, 식사 후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온 도반, 이들과 함께한 하루는 아름다운 빛에 둘러싸인 시간이었다.



## 걸으며 생각하며, 강릉 옛길

한명숙 / 봄내중학교

●●●

봄, 그녀가 올었다. 처음으로 사춘기 아들과 함께 걸었다 했다. 한 발짝 떨어져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했다. 비로소 터득한 그 길, 대관령 구비마다 산목련, 함박꽃 향이 그윽했다. 아들들은 엄마 품을 떠나고 빈 둥지가 된 가슴들이 7년이나 지속한 학부모책모임!

여름, 그녀가 웃었다. 초록이 빛나는 숲길에 초록보다 더 환한 햇살로 함박웃음을 지며 숲길을 걸어왔다. 20년을 한 길로 걸어왔던 삶의 도반이었다. 아직도 저 숲길 모퉁이를 돌아 환한 웃음으로 걸어 나올 듯한 그녀의 길….

가을, 그녀가 읽었다. 아흔아홉 구비마다 걸음을 멈추고 낭독회가 이어졌다. 그가 받아 읽고 그녀의 친구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스승이 받아 읽었다. 반정을 내려오니 책도 반 넘어 읽었다. ‘길 위의 낭독회’!

다시 가을, 그녀가 걸었다. 그해 봄, 여름, 가을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길, 눈개가 흩뿌려 아스라한 안개 속에서도 기억은 선연하다. 길 위에서 길을 걸었던 이들과 그리고 묵묵히 나무가 되어, 빗줄기가 되어 함께 걷는 이 길,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 2021년 9월 25일 씀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걷는 독서》828쪽



# 너를 만나러 가는 길

황현정 / 화계초등학교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너는 달리는 버스를 따라 끊임없이 따라오는 햇무리였다. 너는 물기를 가득 머금은 회색빛 먹구름, 저 멀리 긴 능선을 따라 길게 길게 누워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너는 노란 물감을 진하게 풀어놓은 들판처럼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쩌면 너는 제비동자꽃이 진 후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속새가 아니었을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음이 텅 비어 몸에서 바람 소리가 새애새애 나는…. 아아, 넌 새파란 질경이였구나. 발길 닿는 곳마다 ‘어서와, 어서와’ 힘차게 환대하는 목소리.

너는 산죽이 환하게 핀 옛길을 걷는 어느 여인의 뒷모습이었던 것 같다. 바알간 단풍잎 하나 귀에 꽂고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뿐사뿐 안갯길을 내려가던.

아! 너는 어디에든 있었구나. 수없이 많은 너를 만나면서 나는 진짜 ‘내 목소리’를 듣는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나’를 만난다.



나에게만 다르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내 목소리다.

나는 나 자신에게 늘 착각이다.

-《걷는 독서》310쪽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의 시작길에서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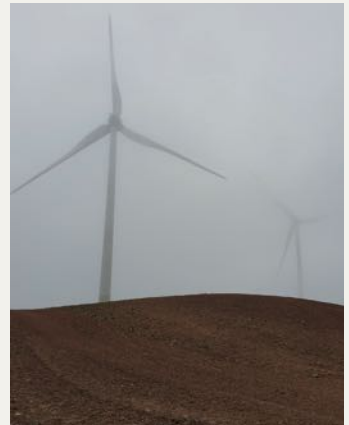


안개가 자욱한 숲속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관령 정상에서 모두 다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으며 함께 걷는 이의 모습을 바라본다.





강원교사인문학여행

# 5

PART

---

박노해 詩와 걷는  
양구 옛길







## 양구 편치볼 둘레길을 걸으며

김선희 / 홍천여자중학교



일기예보대로 비가 부슬부슬 내려 우산을 쓰고 들어선 편치볼 둘레길. 편치볼은 양구지역이 화재그릇(편치볼)을 닮았다고 6.25 때 미국 중군기자들이 지은 지명이라고 한다.

양구는 아직도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어 개방된 곳만 다닐 수 있는데 이 편치볼 둘레길도 숲속으로 난 작은 오솔길만 따라 걸어야 한다고 지역민 숲속해설사가 강조하였다.

산길이 완만하고 낙엽이 쌓여 폭신평신킨 걷기 편하며, 가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두 팔을 벌려 가슴으로 숲속 향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그러다 발견한 철조망에 걸린 ‘지뢰조심 표지’가 하나, 둘, 셋...

그리고 폭탄의 파편도 주워 직접 만져보았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강렬하게 아프게 다가왔다.

애써 외면해온 역사적 상처와 마주한 순간,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생각한다.



내가 가장 상처받는 지점이  
내가 가장 욕망하는 지점이다.

-《걷는 독서》



#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길

김현숙 / 소양중학교



사람 손길을 타지 않은 양구의 원시림. 화려한 봄날과 뜨거운 태양빛을 듬뿍 받고 여름을 지나서 이제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감싸주는 녹진한 향의 낙엽들, 그 위를 비와 바람과 함께 다녀왔다. 태고적부터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듯 했다. 감사함, 고마움의 하루였다.

양구 편치볼 안의 마을. 한국 전쟁 이후 국가적·정치적 목적으로 이주하여 고향으로 삼고 살아온 마을, 북쪽으로 현관을 내야 하고, 대북 대남 방송으로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접어두게 했던 곳, 산기슭마다 파편 조각이 자갈마냥 박혀 있는 곳 - 분단의 산 지표, 우리들 아픔의 총화가 그대로 드러난 길에 평화로 가는 길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아름다운 것들에는 치열함이  
어려 있다.

아름 다움은 치열한 앎에서  
탄생한다.

//

기를 쓰지 말고

마음을 써라

-《검는 독서》





# 맨발로 걷는 해안둘레길

김효문 / 강원교육연구소



가을바람 불어 떨어지는  
낙엽을 맨발로 걷는다  
비 내려 축축한 낙화

가을 속으로 폭 들어 간다.



삶에는 준비가 없다.  
삶에는 유보가 없다.  
삶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걷는 독서》



# 백자박물관으로 시는 흐르고

라상숙 / 중앙초등학교



양구로 떠난 이번 역사문화생태답사는 말하지 않는 것들과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여행길이었다. 불쑥 찾아온 낮선 이방인을 향해 저마다의 빛깔과 소리와 향기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같았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DMZ 편지불둘레길 곳곳에 박혀 있는 포탄 파편들은 아픈 역사를 말해주었지만 긴 세월 속에서 많은 생명을 품어주며 조용히 치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숲속 구석구석에서 생명을 뿌리내리며 각자의 사연을 간직하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은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숲속의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오다 휘몰아치고 또 다시 조용해지기를 반복하며 멋진 연주를 해주었다. 거기다가 해설가의 재미있는 해설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주었다.

이렇게 빗소리, 바람소리, 발소리를 따라 꿈속을 여행하듯 숲길을 걸었다. 좋은사람들과 함께 거닌 자생식물원도 가을의 운치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백자박물관은 입구부터 상쾌한 향기로 맞이했다. 빗속에 은은하게 퍼지는 계수나무의 달콤한 향기는 좀 더 머물다가라고 발길을 붙잡는 것 같았다. 매끈하고 보얀 백자의 자태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차분하게 했다.

나른하게 하루를 보내버렸을 주말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할 기회를 주신 한명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께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걷는 독서》358쪽



## 독풍(讀風): 바람을 읽으며

박명희 / 성수고등학교

●●●

시간 여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물리학자 김상욱 님이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2027년은 어떨까? 궁금하지만 그 시간 속에 빨리 가닿고 싶지는 않다. 슬쩍 보고 돌아올 수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거닐어보는 시간. 조선시대 도공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거기, 2021년은 어떤가? 양구백자박물관에 시간을 고스란히 안고 누운 자기들을 들여다보다 문득 도공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흙이 좋아 그토록 우아한 곡선미를 드러내는 자기가 태어난 곳, 양구. 그 양구의 숲 한가운데서 만난 바람이 어찌나 좋던지 철망과 지뢰 표지가 없었다면 그곳이 북한과 접경지임을 망각할 뻔했다.

바람을 읽으며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생물을 만나 하나 하나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바람처럼 달린 것도 같다. 읽고 걸으며 사유하는 이 '걷는 독서'가 나는 참 좋다.

'펀치볼(Punch Bowl) 분지'의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며 DMZ 인근의 다양한 생물들과 만나 생물 종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펀치볼 분지의 아름다운 숲길 곳곳의 철망과 지뢰 표지, 'DMZ 자생식물원'의 'DMZ 통문(영화 촬영 소품을 이전해 놓은 것)'을 보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인식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자연과의 공생을 생각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좋은 모델이 되어 줄 것 같다. 《걷는 독서》책이 나침반이 되었던 교사인문학여행은 수업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쓸어가는 비바람.  
시간은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거장의 손길.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걷는 독서》281쪽





# 그리운 아버지와 함께 걷는 편치볼 둘레길

박혜진 / 유봉여자고등학교



나에게 양구는 어릴 적 아빠가 소양강에서 배를 타고 근무를 하러 가셨던 곳. 조출한 살림살이만으로 주중 외로운 긴긴 시간을 홀로 지내시던 곳. 그때 아빠가 쓰시던 추억의 양은밥상이 세월을 돌고 돌아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유행하는 지금, 아빠는 이제 곁에 안 계시지만 양구의 기억은 나에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처음 가는 양구도 아닌데 유난히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는 것은 진하게 흐린 하늘 탓인지, 아님 내가 그때의 아빠 나이가 되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여러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상념이 쌓였다. 그리고 바람을 맞고, 빗방울이 흩뿌려지는 속에서 아빠의 삶이 나에게 녹아드는 것 같이 기억이 선명해졌다.

이 길을 아빠도 걸어봤을까?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도 아빠는 가족과 함께 걸었을 때처럼 막힌 도량을 열어주고, 쌓인 나무와 돌을 치워주며 걸으셨겠지. 유난히 숲의 나무와 풀에 대해 해박하셨던 아빠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만 보고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척척 알려주시곤 했다. 그래서인지 나도 나무와 풀과 이끼, 숲에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눈길이 가고 걷고 싶은 길이라 생각한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 믿는 여러 선생님과 함께 걷는 양구 편치볼 둘레길. 그 곁에는 나의 아빠가 살며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경험은 소유하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

체험 속에 나를 소멸해가는 것이다.

-《걷는 독서》





# 나무와 꽃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

심금순 / 서상초등학교

2년 전 산악회를 따라서 편치불 둘레길을 걸었다. 그때는 해설사의 설명 없이 등산 위주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설이 있어 유익했다. 요즘 들어 부쩍 꽃과 나무 이름을 알아가는 게 즐겁다. 걷기를 자주 하면서 꽃과 나무의 이름이 궁금하여 알아가며 공부하는 재미에 빠졌다. 가을에 맨 먼저 붉은 빛으로 물드는 붉나무, 이제 붉나무를 보면 빨강게 고운 빛깔을 기억하며 이름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소금이 귀한 내륙지방에서는 소금나무 열매가 짜기 때문에 소금 대신 쓰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직접 만지고 맛을 보니 하얀 가루가 정말 짭맛이 났다. 연리지가 아니라 혼인목으로 만나 참회나무라는 자식까지 낳은 단풍나무와 쪽동백나무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다. 보라색의 예쁜 투구꽃이 사약으로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천남성도 마찬가지로 독이 들어 있다고 한다. 노린재나무는 억울하다. 조선시대 의병이나 승려들의 옷을 물들이는 재료로, 노란 잣물과 같은데 일본의 잘못된 학명 등재로 냄새도 이름도 고약한 노린재나무가 되었다. 참 분하고 억울하다. 이런 식물 학명을 가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이다.

나무와 꽃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존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모습에서 질긴 생명력과 생존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박노해 시인의 시처럼 우린 비바람 치는 편치불 둘레길을 걸었다.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비바람 치는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길의 절반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걷는 독서》



# 먼저 인사하는 마을

안동화 / 강원교육연구소



“안녕하세요!”를 먼저 해준 마을.

DMZ라는 최북단 마을,  
편치불!

조금 불안한 맘도 없진 않지만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박노해 시인처럼

‘말은 적게,  
걸음은 조심조심,  
마음은 한가로이’

참 좋은 추억 한 페이지를 인생에 하나 더 만들었네요.  
감사!



말씀은 가만가만, 걸음은  
나직나직, 마음은 한들한들, Word,  
gentle, gentle, Steps, softly,  
softly, The heart, trembling,  
trembling

-《걷는 독서》





## 해안면의 이쁜 이름들

유상열 / 강원교육연구소



세상의 끝에 오지가 있다.

아니다.

오지의 끝에 세상이 있다.

- 박노해의 <새상의 끝에>

세상의 대립과 경계가 서로 밀쳐대다 내어놓은 땅  
 못 나무와 풀과 사람들이 오지게 농사하는 해안면  
 전쟁의 날들에도 햇빛은 비추고 비도 내렸겠지.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벌레소리 참호에도 스몄으리라.  
 늘 지금 이곳에 생명의 숲과 바다를 일구는 이들  
 우리에게 품을 내주고 세상을 품는 이들의 기운이 널리 퍼져나가기  
 를 화해로 치유로 평화로.  
 이들의 이쁜 이름을 다시 올려본다.

구슬댕댕이. 털딱지꽃. 개벼룩. 등대시호. 터리풀. 하늘나리. 배초향.  
 돌양지꽃. 벼룩이울타리. 까치박달. 사시나무. 당조팝나무. 백두산  
 떡쑥. 산오이풀. 꼬리조팝나무. 뼈꼭나리. 이대. 큰땀무. 솔채꽃. 흰  
 양귀비. 콩제비꽃. 함박꽃나무. 덩불조팝나무. 줄방제비꽃. 맑은대  
 쑥. 가락지나물. 박하. 참꽃마리. 할미꽃. 큰개현삼. 비비추. 배초향.  
 송장풀. 쯔개미취. 방아풀. 갈매나무. 정영영경귀. 참우드풀. 개부처  
 손. 땀뿔. 대나물. 백운산원추리. 섬초롱꽃. 감국. 매발톱. 투구꽃. 이

질풀. 긴꼬리풀. 노루귀. 복수초. 열레지. 현호색. 노루오줌. 떡갈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붉나무. 음나무. 아카시나무. 층층나무. 앞갈나무. 노린재나무.



첨첨산골의 흙을 경기까지 실어  
나르다니 대단한 역사였다.  
아마 달이 언젠가 양구로 떨어진 적이  
있었던 것이다  
백자가 나에게 쉽표처럼 다가왔다.

- 〈하얀 쉽표〉





# 비 오는 일요일의 걷는 독서여행

임효정 / 장학초등학교

단돈 만 원의 행복이라기엔 너무 많은 선물을 받은 하루!

멋지고 세련된 호랑이버스를 타고 김밥을 먹으며 처음 도착한 곳은 양구 해안 편치불이었다. 해설사의 친절하 설명을 들으며 선생님들과 숲길을 걸었다. 지뢰 표지가 있어 좀 무섭기도 했지만 폭신평신향길을 나무 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어 좋았다.

비가 점점 많이 내렸지만 큰 나무가 우산이 되어 주기도 했다.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붉나무는 이름처럼 붉게 물든 잎을 보여주었다. 열매를 맛보니 정말 짭맛이 났다. 신기했다.

해안면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는 키 큰 부부 소나무가 우아하게 지키고 있었다. 비가 와서 흐릿해도 나뭇 운치 있었다. 숲속으로 불어 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우렁찼다.

다시 숲길을 걷다가 당단풍과 쪽동백의 연리지를 보았다. 두 그루의 나무가 어떤 사연인지 한 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낳은 아기 나무가 참회나무라고 하셔서 너무 웃겼다!

편치불 둘레길을 걷고 마을회관에서 농가 맛집 뷔페를 먹었다. 각종 나물과 시래기된장국, 호박전과 옛날식 '사라다' 등 직접 농사지어 만드신 소중한 음식을 감사히 먹었다.

오후에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DMZ 자생식물원은 아기자기하고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다. 곳곳에 피어난 노란 산국이 빗속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선물했다. 좋은 날 다시 가 보고 싶다.

마지막 코스인 백자박물관은 더 넓고 현대적인 시설로 발전되어 있었다. 1,000인의 도자기 전시와 미디어아트도 볼 수 있었다. 박물관을 나와 앞마당을 걷는데 계수나무의 달콤한 향기가 빗속에서도 강

렬했다. 노랗게 단풍 들어 떨어진 하트 모양의 잎들도 아름다웠다. 집에 와서 《식물의 책》을 찾아보니, 낙엽이 부서지면서 ‘말뚝’이라는 분자를 방출하는데, 그때 나는 냄새라고 한다. 식물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놀랍다. 나무나 꽃 이름을 잘 몰라 메모장에 적어보고 집에 와 식물도감을 찾아보았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겠지? 시간 될 때마다 숲으로 가서 나무와 흙내음을 맡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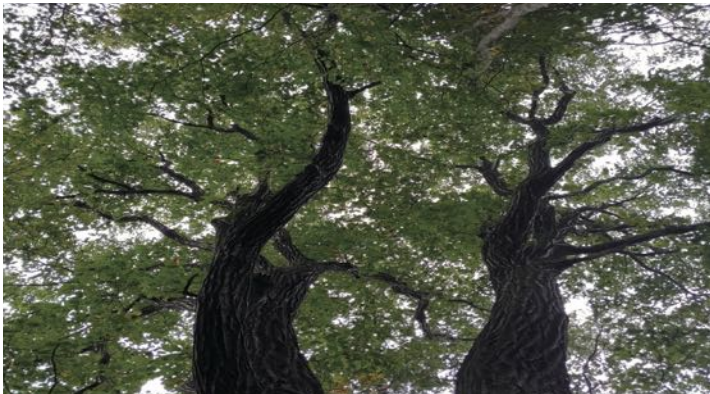
버스에서 한명숙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 <다가오는 것들>도 인상적이었다. 50대 여성이 겪는 인생의 변화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 생각했다.

비 오는 휴일, 집에서 침대와 한 몸이 되어 게으르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애쓴 여러분 덕분에 가을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닌 죽음이듯  
진정한 자유란 ‘함께하는 혼자’로  
숲속에 선 푸른 나무다.”

-《검은 독서》287쪽



## 친구 만나러 갔던 길을 오늘은 時와 함께 올랐네

주민주 / 봄내중학교

20년 전 해안에 첫 발령을 받은 동기를 만나러 인제에서 버스를 타고 서화를 지나 해안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마을 입구에서 검문하는 군인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왔던 곳, 마을 둘레 산꼭대기 탐에는 ‘민족해방, 평화통일’ 그런 문구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고 겨울이면 산등성이에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도 내건단 설명을 들었다.

내게는 좀 낯설었고 마치 영화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해안, 이곳을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다.

사전 예약을 하고 숲해설가의 동행으로 시작한 편지불 둘레길 이곳은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붉나무 잎이 붉게 물들고 야생화는 벌써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날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인지 숲속은 더 고요하고 신비롭게 다가왔다. 숲해설가께서 이곳이 북방한계선의 나무와 꽃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하시며 나무와 야생화, 산나물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일화를 재미나게 들려주었다. 특히 야생화 하면 인제 점봉산에 가야 많이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봄이 되면 노란 복수초와 노랑제비꽃 등으로 이곳이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고 노란 야생화 꽃이 지고 나면 흰색의 노루귀, 나도바람꽃, 너도바람꽃 등 흰색의 야생화가 피어난다고 한다. 다음엔 산벚꽃과 분홍빛의 야생화들로 이곳이 분홍빛 야생화 꽃밭이 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내년 신비의 작은 꽃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때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산은 안타깝게도 산불이 한 번 나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길가엔 나무껍질 같아 보이는 포탄들이 길가에 널려 있어 이곳이 분단의 현장 DMZ임을 실감케 했다.

부부 소나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해안은 그 특이한 지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제4땅굴과 북한의 박달봉 등 북한의 산하도 한눈에 들어왔다. 을지전망대에서는 초소의 북한 군인들이 보이고 북한 군인들이 김장하기 위해 배추를 나르는 모습까지 다 보인다면 지금과 같은 남북 대치상황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한 사람들이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평화로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싶다. 북쪽의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저 기러기처럼….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걷는 독서》



# 바쁜 걸음을 슬며시 늦추는 오늘

최경화 / 소양중학교



양구 편지불 둘레길과 백자박물관을 탐방하는 중에 《걷는 독서》의  
다음 시들이 떠올랐습니다.

삶을 허겁지겁 살지 않기.

생의 정수만을 음미하며 살기.

목적지는 저 먼 어딘가가 아니다.

그곳에 이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다.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멀지 않은 법이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절제된 우아함과

삼간 자유로움.

저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허락하소서.

최소한의 물질에서 최대한의 기쁨을.

최소한의 지식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최소한의 관계에서 최대한의 사랑을.





등산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차게 목표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을 감상하며 명상도 하면서 그 과정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생도 삶의 정수를 음미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쫓아 바쁘게 살다가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 산국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길

최박희 / 소양중학교



예전에 8년간 양구에 산 적이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두타연계곡에 가보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에 감동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번 편지볼 돌레길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의 양구 삶 시기에 는 절대 갈 수 없어 이번 걷기를 신청하였다. 역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다. 한편으로 지뢰 매설 지역이 가까이 있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숲 해설가의 말씀을 들으며 숲을 걸으니 역시 아는 식물들이 눈에 띄어 걷는 걸음걸음이 더욱 즐거웠다. 옹나무 가지를 넣어 삼계탕을 먹었는데 실은 원래 이름이 옹나무라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새롭게 조성된 수목원은 아담한 크기로 소나무와 야생화를 조성해 놓았다. 산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좁작살나무의 보랏빛 열매가 화려하고 풍성한 자태를 뽐내고 있어 비 내리는 수목원을 우산 쓰고 여기저기 돌아보는 재미가 매우 좋았다. 어린 시절에 비오는 날 ‘날긋이’ 한다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날긋이’ 하며 돌아다니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에 빗소리까지 금상첨화였다.

내년 봄에 다시 가서 봄에 피는 야생화를 구경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이 지상에

비밀히 던져진

씨앗 하나

아무도 모른다.

내 안에서 무엇이 피어날지

많은 씨앗들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심지어 나무 위에도 떨어져 나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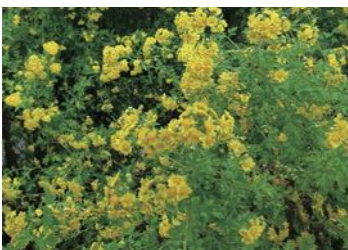
몸을 타고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았다.

씨앗이 언제 어디로 떨어져 어떻게

뿌리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걷는 독서》501쪽



# 해안둘레길 숲의 검은빛

최주미 / 양구중학교



DMZ 편치볼 둘레길 걷기는 해설사가 도로변 울타리에 걸려있는 자물쇠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민통선 마을의 둘레길이라 숲길 안내자와 동행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이다. 100m 걸었을까? 잎갈나무숲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 흐린 날이어서일까? 숲은 검은빛이었다. 아름다운 검은빛, 숲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숲길 산등성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포탄 파편들을 해설사가 보여준다. 간간이 길 양옆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삼각형 표지판에 '지뢰'라는 글씨가 보인다. 6.25전쟁 때 해안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길에서 전쟁의 상처가 느껴졌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일까? 숲은 울창하고 신비롭고 고즈넉했다. 숲은 곧 깊은 위안과 쉼을 가져다 주었다. 쉼터 나무 의자에 앉아서 맞는 바람은 영혼을 맑게 하고 마음과 정신을 깨워주었다.

부부 나무가 있는 소나무 전망대에서 편치볼, 해안을 내려다보았다.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민통선 마을, 농부들의 땅 소유권 문제... 이곳에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한다. DMZ의 숲, 버스 안에서의 <다가오는 것들>, 농가 식당의 점심식사, 방산의 백토를 만나는 시간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삶을 깊게 음미하는 시간이었다.



삶을 허겁지겁 살지 않기

삶의 정수만을 음미하며 살기

-《걷는 독서》



# 걸으며 생각하며 비우며

한명숙 / 봄내중학교

●●●  
숲바람이 일었다. 계절이 성큼 지나가며 비를 머금은 숲속 이끼와 돌과 나무들이 오랜 시간을 머금고 ‘쫌아’ 다가왔다. 키 큰 물박달나무 군락 가지 끝 우듬지부터 잎 넓은 떡갈나무, 갈참나무숲을 스치고 키 작은 노린재나무 줄기마저 흔들고 급기야는 시들어 떨어진 꽃대만 남은 금강초롱 여린 잎까지. 숲길 가득한 묵은 잎까지 바람에 날렸다. 두 팔을 벌렸다. 변하지 않는 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래고 오랜 숲속 성장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내 안에까지 스며들었다.

DMZ편지불은 바람과 물과 햇빛에 길고 긴 날 풍화되고 침식되어 일귀넌 땅이라고도 하지만, 어쩌면 태고의 시간을 거슬러 먼 하늘의 별이 언젠가 지구별에 닿았던 흔적일지도.... 전쟁의 아픈 바람이 훑기 전에는 숲속 나귀길로 등짐을 실은 이웃들의 정담이 오가기도 했으리라. 누군가 처음 걸었던 이 길도 여럿이 걷고 걸어 길이 되었으리라...

바닷가 소금짐을 진 노새와 산골마을 감자, 콩을 실은 당나귀들도 장







터를 찾아 이 길을 걸었으리…. 그네들이 쉬어가던 자리의 이야기는 청솔모가 상을 차려 가래랑 다래랑 나눠 먹은 바윗돌로 남아 있나니….

오래된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는 즐거움’에 빠져든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마음을 비우다 보면 느닷없는 마주침과 만남의 순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오늘도 좋은 도반들과의 ‘걷는 독서’는 마스크를 낀 자발적 묵언으로 함께 길을 열어간다. 더 속 깊은 만남으로 나누고 모이고 마주하며, 오래된 시간, 오래된 장소, 오래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앞선 과거’로 돌아나오는 길을 찾아 나선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501쪽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해설사의 안내를 숙지한다.



10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숲속 길



양구백자박물관 앞에서 우리 함께^^



DMZ편치볼 둘레길 정상에 오르며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강원교사인문학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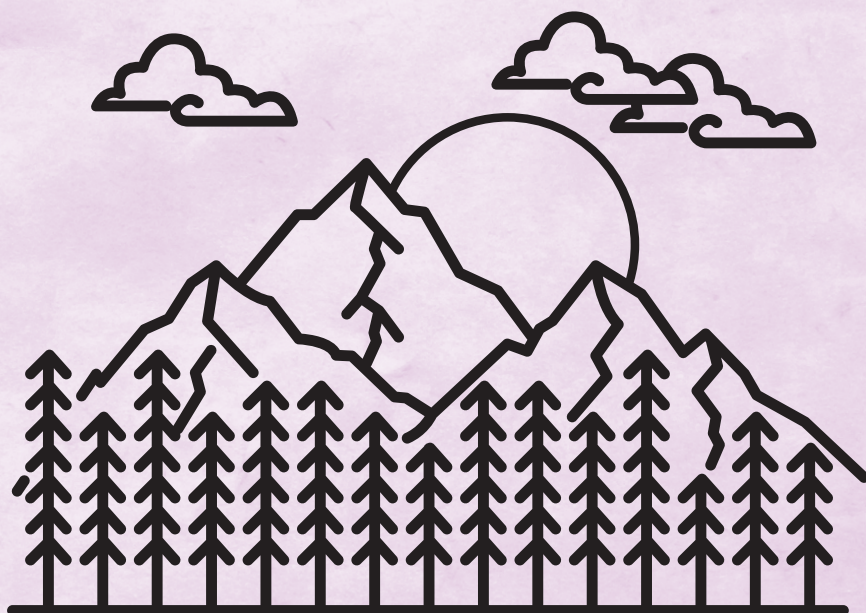
# 6

PART

---

시인과 함께하는  
인제 자작나무숲 옛길







# 이토록 아름다운 평화라니

김상희 / 화천초등학교

시인의 시어처럼 철없이 내린 겨울같이, 시린 공기를 뚫고  
하얀 자작나무들을 만나러 가는 가을날.  
우리는 백석 시인의 <백화>에서, 영화 <안개 속의 풍경>과  
<닥터 지바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보았던 마음속  
자작나무를 눈으로 끌어안았다.  
함께 걸었던 분들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시’가,  
숲에서 소리 내어 낭송하는 ‘시어’들이  
자작나무들과 그의 잎들과 모든 꽃, 나뭇잎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울린다.  
이토록 아름다운 평화라니!



눈송이에 방을 들였지  
떠오르고  
떠오르다 잠이 들었네  
구석으로 구석을  
엮고 엮힌 방

철없이 겨울이 내렸어  
방은 어디에 있나

구름의 눈동자에 묻어난다.  
반달이 반을 읽고  
새가 돌아본다  
깊은 오후  
깊은 숨이 숨는 방

수소폭탄 서른 개의 폭발 에너지를  
가진 손이  
하나로는 만들 수 없는 눈송이  
눈송이에 방을 들였네  
새끼손톱만 했네  
주춧돌은 없었지  
손톱으로 긁어 파낸 바닥은 있었지

일 년에 두 번 정도 울어도 좋은 방  
바람은 계산하지 말자

손은 모았지  
눈송이, 세계를 떠다닌다  
봄 가지 어디에도 주저앉지 않고

- 한영수의 <송이에 방을 들였다>



# 자작나무숲속 시 낭송

김선희 / 홍천여자중학교

●●●

시월의 청명한 가을날 인제의 자작나무숲에서 시집을 딱 펼쳤을 때 나에게 다가온 '나무'는 시 낭송회에 어울렸다.

자작나무는 외피에 여기저기 지흔을 남기며 강렬히 불꽃같은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밖으로 향하던 세월을 넘어 자신의 내면으로 눈뜨고 몰입하게 될 때에 경건해진다. 그동안 자작나무는 스스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한때는 푸르기도 했으며 언제까지 푸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어느 가을 물웅덩이에 비쳐진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잎을 떨구어 앙상한 가지만 남는 시간. 그동안 무성한 앞에 가려 푸르름의 시간 속에서 나무는 자신이 나무인지, 하늘의 우주의 약기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나무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 우주의 아름다운 약기가 되어서 울리는 것이다. 가을날 인제 자작나무숲속 길을 걸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시간이었다.

나무는 몰랐다  
자신이 나무인줄을  
더욱 자기가  
하늘의 우주의  
아름다운 약기라는 것을

- 이성선의 <나무>





## 마의 태자 비문을 보고

김현숙 / 소양중학교

지훈이 아름다운 자작나무숲에서 상생의 고마움을 배우고 다시 만난 마의 태자 비문. 충과 애국의 절절한 마음이 파고들어 있는 비문 뒷면에는 이 탐을 찾은 이들이 적혀 있다.  
그 이름은 교사, 선생님. 가끔 사라질뻔한 마을이 한 교사의 힘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힘은 그렇게 큰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선생先生님이란 앞서 사는 님.  
먼저 진리를 살아내고  
앞선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이 그리워라.

- 박노해



# 자작나무와 마의 태자

김효문 / 강원교육연구소

●●●

935년, 가혹한 수탈에 맞선 농민과 노비들의 봉기와 중앙 진골 귀족들의 정치권력에 맞선 6두품과 호족 세력의 저항으로 신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넘겼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였던 천년 왕국의 운명도 다하였다. 진골 귀족 세력들은 고려 왕건에 투항하여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보장 받았다. 그런데 항복을 반대하고 ‘금강산에 들어가 세상을 피했거나 아니면 설악산 골짜기에서 지역민들을 규합해 저항 운동을 했거나’ 하는 마의 태자 전설은 또 무엇인가? 혹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기층 민중들의 꿈이 마의 태자의 전설로 다시 천년을 이어 내려온 것은 아닐까?

깊은 가을, 자작나무는 가지와 잎을 스스로 놓아버리며 동료들과 함께 겨울을 준비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가진 것을 놓아버리며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래야 오는 봄에 자작나무 새순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가르침, 지훈!



해결할 것이 있고 해소할 것이 있다.

풀지 않으면 쌓여가는 것과  
놓아두면 풀려가는 것이 있다.

-《겉는 독서》368쪽





## 시인과 함께하는 낭송 체험

라상숙 / 중앙초등학교



적당히 서늘하고 적당히 깊어진 가을날, 아름다운 자작나무숲을 거닐었다. 자작나무 사이로 환하게 비치는 가을 햇살은 따스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수많은 눈빛은 자작나무 가지의 흔적이 만들어낸 작품이란다. 그 눈들을 바라보노라니 문득 동화 속 인어공주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동화 속 인어공주는 사랑을 얻기 위해 두 다리를 얻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렸지만 자작나무는 함께 살기위해 가지를 버리고 눈들을 얻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줬버린 인어공주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었지만 자작나무들은 가지를 버리고 함께 뻗어 바닷물처럼 파란 가을 하늘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인어공주도 이 자작나무숲길을 사랑했던 왕자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질없는 상상이었지만 잠시 나도 모르게 동화 속 주인공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한영수 시인과 함께한 시 이야기와 낭송 시간도 참 좋았다. 들려준 <눈송이에 방을 들였다>처럼 나의 눈송이 방에도 예쁜 자작나무, 따스한 햇살, 빨간 단풍잎, 대추 한 알, 함께한 선생님들의 환한 얼굴, 파란 하늘, 추억 속에서 소환한 인어공주, 그리고 시에 빠져든 내 모습까지 담아둘 것이 참 많았다. 내가 담아둔 것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다. 일상에서 지칠 때 방문 하나만 열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몰락한 왕조의 흔적을 따라간 마의 태자의 길에서 천 년의 역사를 떠올려 보았다. 매번 '걷는 독서'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다. 예쁜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서 아낌없이 공유해준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가을별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걷는 독서》546쪽



# 독심(讀心): 마음을 읽어요

박명희 / 성수고등학교

●●●

인제 갑둔리 오층석탑 앞 큰 소나무 아래에서 들은 적벽가 한 소절이 참 좋았다. 통신신호마저 끊기는 첩첩산중 갑둔리에서 마주한 석탑은 천년 전 사람의 손길과 21세기 사람의 눈길 사이에서 서 있다. 천년 전 고려의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기다렸을까….

‘시월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달’이라 명명한 카이오와 족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마지막 부족이라고 한다. 대지 위의 모든 생명이 오롯이 자신의 생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돌아갈 수 없었던 누군가, 돌아갈 수 없게 했던 누군가, 이들은 이제 모두 이 땅에 없다.

가을이 와 떨어져 누운 잎을 볼 때면 삶의 유한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늘 마음을 읽고 싶어 길을 나선다. 한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마음 읽기. 조금은 더 멀리 떠나 보아야 하는 것일까…….

‘걷는 독서’와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었던 시월이 이제 하루 남았다. 소중한 시월의 마지막 날에 《걷는 독서》를 다시 펼쳐 보아야겠다. 11월에는 고운 단풍빛 속으로 책 한 권 손에 들고 길을 나서야겠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걷는 독서》391쪽

내 발끝의 ‘지경地境’이

내 정신의 ‘경지境地’다.

-《걷는 독서》639쪽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지 말 것.

-《걷는 독서》3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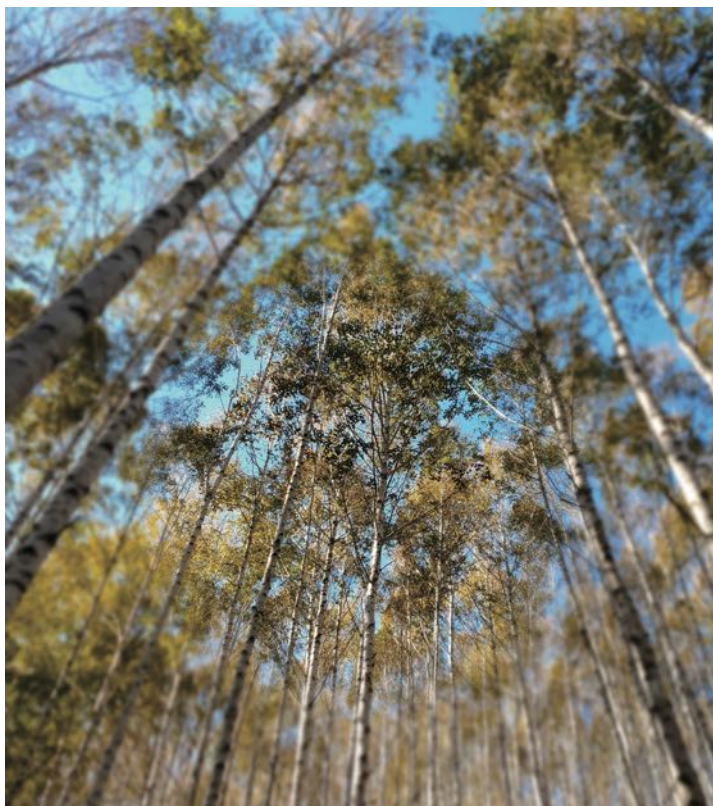




#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신영숙 / 부안초등학교

●●●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  
 안개 속을 지나 시냇물 소리 따라 숲길을 걷는다.  
 이 순간, 자작나무숲과 하나가 된다.  
 오늘은 가을을 담은 자작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방을 들여놓는다.



눈송이에 방을 들였지  
 떠오르고 떠오르다 잠이 들었네  
 구석으로 구석을 엮고 엮힌 방  
 철없이 겨울이 내렸어 방은 어디에 있나  
 구름의 눈동자에 묻어난다  
 반달이 반을 읽고 새가 돌아본다  
 깊은 오후 깊은 숨이 숨는 방  
 수소폭탄 서른 개의  
 폭발 에너지를 가진 손이  
 하나로는 만들 수 없는 눈송이  
 눈송이에 방을 들였네  
 새끼손톱만 했네 주춧돌은 없었지  
 손톱으로 긁어 파낸 바닥은 있었지  
 일 년에 두 번 정도 울어도 좋은 방  
 바람은 계산하지 말자  
 손을 모았지 눈송이, 세계를 떠다닌다  
 봄 가지 어디에도 주저앉지 않고

- 한영수의 <방>

# 자작나무숲에서 시를 읽다

심금순 / 서상초등학교



인제 자작나무숲은 여러 번 갔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갈 때마다 하얗고 보얀 줄기와 지흔들이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롭다. 이번에 한영수 시인과 함께 자작나무숲에서 시를 낭송한 경험은 아주 귀한 경험이 되었다. 주변이 온통 자작나무라 더 운치 있고 웬지 가을에 흠뻑 빠져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의 태자와 관련 있는 갑둔리 오층석탑길을 따라 걸으며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왕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기도 했다.

늘 이런 좋은 연수, 인문학과 함께하는 걷는 연수를 만들어준 한명숙 선생님과 뒤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나의 인문학적 교양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다.

‘걷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내면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고, 답답했던 가슴 속을 나무와 꽃 향으로 채우게 되었다. 창밖의 세상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된 뜻깊은 답사가 되었다.



자작나무처럼 나도 추운 데서 자랐다  
자작나무처럼 나도 맑지만  
창백한 모습이었다  
자작나무처럼 나도 꽃은 제대로  
피우지 못하면서  
꿈의 키만 높게 키웠다  
내가 자라던 곳에는 어려서부터  
바람이 차게 불고  
나이 들어서도 눈보라 심했다  
그러나 눈보라 북서풍 아니었다면  
곧고 맑은 나무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몸짓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외롭고 깊은 곳에 살면서도  
혼자 있을 때보다 숲이 되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 도종환의 <자작나무>



# 빛처럼 서 있는 숲에서

유상열 / 강원교육연구소



안개가 물러나는 산기슭을 돌아 만난 하얀 숲.  
숲은 그 무언가에 감싸여 있었다.

쏟아지듯 내려선 직선은 어떤 기운을 품고 있었다. 북극 아래 시베리아에서부터 북쪽의 들과 산을 내 달려온 광활하고 서늘한 기운인가?  
이 은백의 빛깔은 무엇인가?

온 손과 팔을 흔들며 내려받은 태양의 광배인가?  
시인과 시의 잔잔하고 열띤 물음과 이야기.  
장대비처럼, 빗처럼, 빗처럼 서 있는 숲에서 전해오는 경건함.  
그 숲에 좀 더 머물러 씻고 다듬고 말려야 할 게 있는 것 같다.

긴 안목으로 넓디넓은 숲의 바다에 새로운 성채를 심은 이에 감사하다.  
부디 알흠답게 이어져 가기를...

마의 태자길에 퍼지는 <적벽가>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멋은 무엇, 그 머시기,  
그 무엇이 깃든 신비다.  
멋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감싸여 있다.

-《걷는 독서》490쪽



# 가을 내내 환하게 밝혀 놓을 길

정연실 / 양덕중학교

●●●

몇 년 전 바로 이 길을 아이들과 함께 백석의 시 〈백화〉를 동요로 함께 부르며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작나무 숲속에서 시인의 아름다운 낭송으로 들었다.

자작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고사시키며 위로 자란다. 말라죽은 가지의 상처가 아물며 수많은 지흔(가지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지흔이 사람의 눈을 닮았다. 눈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연대의 지혜를 생각해 보았다.

10월 23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지만 벌써 일주일 전 추워진 날씨 탓에 나뭇잎은 단풍이 들기도 전에 얼어 말라버렸다. 안타까웠다. 다만 곳곳이 버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겨주고 언제 추웠느냐는 듯이 청명하고 선명한 날씨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

자작나무숲을 내려와 갑둔리에 있는 마의 태자 길에서 오층석탑을 보았다. 보기엔 그다지 웅장하지도 않고 오랜 세월에 닳고 닳아 초라해 보였지만, 몇 백년 전 탑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었다.

이 길을 걸으며 내가 선택했던 시는 바로 함민복 시인의 〈가을〉이란 한 줄 시였다. 왜냐하면 가을 내내 이 기억을 켜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생각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 함민복의 〈가을〉



산골 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이 뵈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석의 〈백화(白樺)〉





# 한없이 보고 싶은 그런 가을날

주민주 / 봄내중학교

한 번도 본적 없지만 자작나무가 많은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백석 시인이 몹시 그리운 한 주였다. 시인의 고향, 지내온 곳, 평안도 음식들 직접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늘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는 한 시인.

낮설은 자작나무 숲길을 가을 낙엽을 바스락 바스락 밟으며 걸으니 내 곁에 있는 나를 스쳐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림고, 그림고, 그림고 한없이 보고 싶은 그런 가을날이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매гл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메인다. <중략>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 시가 마음을 풍요롭게

최경화 / 소양중학교

●●●

따스한 햇살이 눈부신 시월의 가을날, 선생님들과 함께 멋진 자연을 만끽하며 걸으니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 시 강연 및 낭송을 들으니 어느 때보다 시의 의미가 강하게 와닿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엔 코로나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고 매체엔 폭력적인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시를 같이하니 정신이 순화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야 시도 잘 써진다는 시인의 강연을 듣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중요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낭송한 시 중에 특히 이 시가 기억납니다.

엄지야 넌 아니? / 널 세우기 위해 / 다른 손가락들이 접힌다는 걸

- 김금래의 <엄지>

우리 인생은 혼자 잘나서만 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느낌을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시원하게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자작나무들  
함께 의지하여 자라난 듯 다정해  
보이네

자작나무 틈새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숲을 휘돌아 나가는 기분 좋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시를 읊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

- 최경화의 <자작나무 숲에서>



# 걸으며 생각하며, 인제 옛길

## - 속삭이는 자작나무숲길에서

한명숙 / 봄내중학교

● ● ●

자작나무 흰 가지 끝 우듬지에서 노오란 잎이 진다. 햇살에 반짝, 눈이 부시다. 해종일 시가 흐르고, 노래가 흐르고, 소리가 흐른다. 자작나무숲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속 깊은 목소리로 시를 읊고 귀기울여 숲의 소리를 함께 듣고 또 듣는다.

한영수 시인의 특강과 낭송, 박일용 교수의 판소리 한 대목까지... 가을 숲의 넉넉함에 그냥 가만히 몸과 마음을 맡긴다. 나무에 기대니 나도 나무가 된다. 자작나무 흰 속살에 기대어 흰 마음으로 하루를 온전히 함께 하니 흰빛으로 날아오른다.

나무와 나무와 나무들이 모였다. 수백 수천의 눈빛, 아름다운 지흔 온몸에 새기며 비로소 우리, 숲이 되었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든 것을 기억한다

- 백석의 <북방에서>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자의 것이니.

-《걷는 독서》501쪽



# 밤새 자작나무를 탔다

한영수 / 시인



시간은 있었다  
바람이 구멍을 만드는 동안

바라보았다  
뒤돌아보았다  
손을 쥐었다  
풀었다

말을 못하는  
시간은 있었다

너는 어디에나 있고

가슴이며 옆구리며 종아리로도  
흰  
나는 병어리였다  
백지 한 장이었다

지붕 위에 밤새  
눈 내리는 소리였다





## 다시 하얗게 채우다

황현정 / 화계초등학교

오랜만에 빈속으로 길을 떠난다. 음, 이 말을 들으면 급하게 먹은 사과 두 조각이 서운하다고 하겠지. 딱 1년 만에 자작나무를 만나러 간다. 자작나무를 만나려면 비스듬히 흐르는 아침 햇살 속으로 오래 걸어야 한다. 후~ 후~ 몸속을 비워 내면서, 탁~ 탁~ 땅의 힘을 받으면서 걸어 올라가야 한다. 부지런히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 바로 아래 펼쳐진 자작나무 숲에 닿는다.

눈송이에 방을 들였다는 시인을 만난다. 따듯한 겨울을 닮은 시인은 만나자마자 ‘비움’을 이야기한다. 어머니! 그 순간 그녀 뒤를 빼곡히 채웠던 자작나무들이 하얗게 비어버린다. 자작나무들 사이로 흰 눈이 내리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중얼거린다. 마법의 순간이다.

그녀가 추천한 <안개 속의 풍경>이라는 영화를 찾아본다. 바람에 흔들리다 떠도는 나뭇잎 같은 두 아이의 여정을 좇는다. ‘일어나, 빛이 야’ 한 마디에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안개. 두 아이는 하얗게 비어 있는 공간을 달려가 나무를 힘껏 껴안는다. 아이들은 그렇게 나무 한 그루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찾아 떠난 길. 자작자작자작, 다시 하얗게 채운다. 아니, 비운다. 그 순간이 벌써 그림다.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 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비우면 비울수록

내 그리운 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걷는 독서》835쪽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빛처럼 서 있는 인제 자작나무 숲길 속에서



한영수 시인의 책을 함께 읽는다.





시인과 함께하는 시낭송체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한영수 시인의 인문강연



## 1. 초등학교

김상희	화천초등학교	유혜남	장학초등학교	조아라	화천초등학교
라상숙	금산초등학교	이현숙	모곡초등학교	조희숙	만천초등학교
신영숙	부안초등학교	이현숙	반곡초등학교	한정혜	속초초등학교
심금순	서상초등학교	임효정	장학초등학교	황현정	화계초등학교
양혜선	비봉초등학교	정순애	가산초등학교		

## 2. 중학교

고미정	봉의중학교	안대진	봄내중학교	이혜란	남춘천중학교
김병임	봄내중학교	안상임	근덕중학교	정연실	양덕중학교
김복희	봄내중학교	양혜숙	봄내중학교	주민주	봄내중학교
김상운	유봉여자중학교	원영애	봄내중학교	최박희	소양중학교
김순남	봄내중학교	윤두성	봉의중학교	최주미	우석중학교
김정민	가정중학교	이보영	화천중학교	한명숙	봄내중학교
성경숙	봄내중학교	이운옥	봄내중학교		
신현창	봄내중학교	이은희	홍천중학교		

## 3. 고등학교

김병덕	봉의고등학교	박윤옥	간동고등학교	황기면	소양고등학교
남궁두	강원애니고등학교	박혜진	유봉여자고등학교		
박명희	성수고등학교	전병천	소양고등학교		

## 4. 인문교육NGO단체

김경신	강원교육연구소	김현호	강원교육연구소	이병덕	강원교육연구소
김산	강원교육연구소	김효문	강원교육연구소	이혁중	강원교육연구소
김원명	강원교육연구소	문순옥	호모데우스 책모임	장동철	강원교육연구소
김원영	강원교육연구소	박병두	강원교육연구소	황기면	강원교육연구소
김재중	강원교육연구소	안동화	강원교육연구소	황선희	강원교육연구소
김진규	강원교육연구소	원영만	강원교육연구소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수기집

펴 낸 날 2022년 4월 29일  
펴 낸 이 서정완(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장)

기획 한명숙, 심재현  
프로그램 매니저 장유리(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제작 여름 출판사

펴 낸 곳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033-248-3217

※ 이 책은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및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2017S1A6A3A01079517)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위크숍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아젠다인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의 줄임말이자,  
한자로는 抱問童이라하여 순수한 물음을 품은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학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선생님과 학부모, 인문교육NGO단체와 함께  
인문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인문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같이 되새겨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 강원교사인문학여행은

지역에 기반하여 강원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  
교사 스스로가 생각하고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함께 강원도의 옛 길을 걸으며  
그 길에 담긴 강원역사와 문화, 일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